

<제1발표>

조선 조정의 에도 막부 인식  
: 조선에서 본 이에야스와 源氏

발표 : 임현채(서강대학교) / 토론 : 유채연(전북대학교)

## <제1발표>

### 조선 조정의 에도 막부 인식: 조선에서 본 이에야스와 源氏<sup>1)</sup>

임현채(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 목차

##### I. 머리말

##### II. 조선의 對에도 막부 이미지

- 1) 회담검쇄환사(1607) 파견까지 히데요시와 이에야스의 이미지 형성
- 2) 에도 막부 정권에 대한 조선 조정의 인식

##### III. 조선의 일본 지배세력 이해 및 源氏 세력의 계보화

- 1) 조선의 일본 우지[氏] 이해와 源平
- 2) 조선이 바라본 에도 막부의 정통성

##### IV. 맺음말

#### I. 머리말

임진왜란이 끝나고 5년 뒤, 이에야스[徳川家康, 1543~1616]는 새로이 막부[江戸幕府, 1603~1868]를 열었다. 그는 히데요시 이전의 상황으로 조-일관계를 되돌리겠다고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1604년 탐적사를 거쳐 1607년 회담검쇄환사를 파견하였으며, 1636년에는 공식적으로 통신사로 명명한 사신을 일본 에도에 보냈다. 조선과 에도 막부의 선린우호 관계는, 비록 외교 현안과 관련한 마찰은 끊이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에도 막부가 멸망할 때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내려왔다.

조선과 일본을 오가는 통신사의 의의에 대해, 현대 일본에서는 자국 내 다이묘 및 민에게 에도 막부의 위용을 떨치기 위한 세례모니로 평가한다.<sup>2)</sup> 에도 막부 내부에서는 야나가와 잇켄[柳川一伝, 1633~1635]을 기점으로 대조선 외교에 대한 막부의 위상을 재정립하였는데,<sup>3)</sup> 이러한 변화를 현대 일본에서는 ‘근세’적인 외교 체제로 변화했다고 보고 있다.<sup>4)</sup> 아라이 하쿠세

1) 본고는 2024년 9월 한일관계사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했던 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재발표함을 미리 밝힌다.

2) 程永超, 『華夷変態の東アジア: 近世日本・朝鮮・中国三国関係史の研究』, 大阪: 清文堂, 2021, 6頁.

3) 일본에서는 이를 ‘대군외교’라고 부른다. 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池内敏, 「第一章: 大君の外交」, 『日本人の朝鮮観はいかにして形成されたか』, 東京: 講談社, 2017을 참조.

4) 関周一, 「II 中世東アジア海域と日朝関係」, 関周一 編, 『日朝関係史』, 東京: 吉川弘文館, 2017, 171~173頁. 한국어 번역본에도 위 내용은 특별한 변주 없이 이루어졌다(허지은·이기원 역, 『한일관계사』, 경인문화사, 2024, 162쪽). 하지만 근세는 ‘일본의 근대’를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특수한 개념이며,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일본의 근세’라는 시대구분론을 그대로 옮겨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한국사의 근세에 대한 연구사와 역사인식은 계승범, 「시대구분론」,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2329>>(검색일자: 2025. 9. 26.)을 참조.

키[新井白石, 1657~1725]의 1711년 일본국왕 복호론도 막부 내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sup>5)</sup> 조-일관계의 큰 쟁점으로 평가받아온 두 사건은, 에도 막부나 쓰시마가 조선을 어떻게 보고 외교 관계를 정립해 나갔는지, 즉 17~18세기 일본의 대조선 인식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

반면 조선인 개인을 넘어서, 조정 전반의 이에야스 및 에도 막부 자체에 대한 인식을 다룬 연구는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주로 20세기 초 일본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반박하는 형태로 프레임을 만들어 왔다. 예컨대 손승철은 조선이 에도 막부와 화의를 맺은 것이 조선 전기의 조-일관계의 형상, 즉 명의 책봉을 전제로 한 조선국왕과 일본국왕의 대등관계 및 쓰시마와의 기미관계 편성 시스템이 이어진 것이라 설명했다.<sup>6)</sup>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조선-일본 간 국제 체계상 문제일 뿐, 조선의 에도 막부 인식을 다루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저 조선이 이에야스가 먼저 일본국왕 명의의 국서를 먼저 보내기를 압박했다는 것만으로는, 에도 막부의 이에야스가 그 이전의 일본국왕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조선 측 입장에서 추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sup>7)</sup>

이훈은 각 통신사별 파견에서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었는지, 조선 조정이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대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sup>8)</sup> 통신사 연구의 주어를 조선 조정에 둔 이 연구는 에도 막부에 대한 조선의 판단을 살펴보기에 큰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이 저서에서는 통신사의 파견까지 이르는 과정을 주로 다루고 있어, 통신사의 귀국 후 보고 즉 복명시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결국 국왕을 비롯한 조정이 가장 절실하게 알고 싶었을 파견 결과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또한 이 저서는 각 통신사별 쟁점과 조선의 정치적 견해를 강조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그렇기에 조선 조정이 에도 막부를 향해 일관되게 보여주는 커다란 흐름은 비교적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임진왜란 이후 이에야스에 대한 평가나 인식을 다룬 연구는 없다시피하며, 조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도 박상휘가 유일하다.<sup>9)</sup> 그는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문인들의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히데요시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는 과정을 다루었다. 그에 따르면 히데요시에 대해서 조선인들은 통치자로서 전국을 통일한 히데요시의 긍정적인 면모를 이해하면서, 히데요시의 포악함과 침략 동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sup>10)</sup>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 ‘공

5)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덕기, 『제3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와 朝·日관계』,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관계』, 경인문화사, 2007을 참조.

6)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교린관계의 허와 실』, 개정판; 경인문화사, 2006, 133~115쪽.

7) 야나가와 잇켄 이후 大君 호칭을 둘러싼 조선-일본 간의 갈등을 두고 한국-일본 간에 양국간의 우월 혹은 대등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손승철, 주 6)의 책, 181~172쪽; 민덕기, 주 5)의 책, 280~282쪽, 292~293쪽). 하지만 이는 현대 한국-일본 학자들의 해석에 따른 분쟁이지, 당대 조선의 입장을 서술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조선은 상대의 호칭 변경 자체보다는 쓰시마나 막부의 권력 향방에 더 큰 관심을 가졌고, 그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에도 막부 내부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예컨대 병자통신사(1636~1637) 정사 任統(1579~1644)은 조선국왕의 서계에 수신자 직함을 이미 大君으로 적었는데 막부 측 회신자의 직함이 大君이 아니라 곤란하다고 주장하였지만(任統, 『丙子日本日記』, 丙子年(1636) 12月 28日), 大君 호칭이 가지는 의미를 일본 측에서 답변하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이후 아라이 하쿠세키의 국왕복호론에 대해서도 조선 조정에서는 큰 논쟁이 되지 않았다(『肅宗實錄』卷50, 37年(1711) 5月 27日).

8) 이훈, 『조선의 통신사외교와 동아시아』, 경인문화사, 2019.

9) 에도 막부 내부에서 임진왜란과 히데요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다루어져 왔으나(김태훈, 『에도시대 초기 조선의 임진왜란 인식: 林羅山の 『豊臣秀吉譜』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34, 2016; 조인희, 『정유재란사(丁酉再亂史) 연구에 관한 한일학계 연구의 현황』, 『學林』46, 2020, 163~165쪽), 조선 측의 인식 분석은 현 단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정적인 인식'이라 평가한 부분은 단순히 事實을 다룬 점으로, 조선이 역사적 사실을 담담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과대평가하였다. 더 나아가 히데요시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에도 막부 시절 통신사의 개별 기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가장 중요한 현안인 에도 막부와 관계 속에서 히데요시의 존재가 왜 혹은 어떻게 소환되었는지, 즉 어떠한 맥락에서 히데요시에 대한 평가가 필요했는지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사료상 이에야스와 에도 막부에 대한 평가가 파편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조선이 화이관(조선-(소)중화, 일본-이적)에 입각해 일본을 본다고 단순화해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지식인들이 파격적인 견해를 가졌다고 설명하려면, 일본의 특수한 점을 夷狄가 아닌 中華로 이해했다는 설명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sup>11)</sup> 그러나 화이관은 중국적 세계질서(Chinese World Order) 영향력 하에서는 고대 이래로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다. 설령 동아시아의 화이관 변화가 두드러지던 17~18세기로 한정짓더라도, 조선에 대해서 이를 선불리 적용할 수는 없다. 조선 조정의 지성사적 흐름은 동시대 청이나 일본이 지녔던 논리인 이적(자국)이 중화를 대체할 수 있다는 중화변용론이 아니라, 진짜 한족 중화가 부재하므로 그 정수를 조선이 잠시 보존한다는 중화계승의식에 가깝기 때문이다.<sup>12)</sup> 더 나아가, 이른바 조선의 탈중화 사상으로 통했던 '실학'은 이미 당대 조선 조정의 보편적인 인식도 아니며, 오히려 구한말(19세기 말)~현대 한국 근대주의(Modernism)<sup>13)</sup>에 의해 소환된 '혁신(=근대)이라는 생각'으로 재정의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sup>14)</sup> 따라서 조선이 에도 막부라는 특정한 정권에 대해 지녔던 인식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에야스와 에도 막부에 대한 조선의 평가를 추적하고자 한다. 히데요시와 이에야스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조선에서는 침략자 히데요시에 비해 이에야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근거는 이에야스가 히데요시 1인과 다르다는 점에만 머무르지는 않았다. 본고는 조선이 "이에야스와 에도 막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조선이 구체적으로 에도 막부의 어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대를 인식해 나갔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일본 내부의 정보망이나 조선으로 전해진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는 필자의 역량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고가 추적하려는 내용은 조선의 인식 체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에도 막부 고유의 특성이나 사실에 대한 정보 유통, 혹은 익히 알려진 일본의 역사적 사실과 조선의 인식 간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부각시킬 뜻이 없음을 미리 짚고 넘어간다.

## II. 조선의 對에도 막부 이미지

- 10) 박상휘, 「조선후기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대한 지식의 추적」, 『국문학연구』30, 2014.
- 11)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해안, 2006;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2009 등.
- 12) 이에 대한 자세한 정리는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2009, 113~214쪽; 계승범, 『정지된 시간: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30~44쪽을 참조.
- 13) 근대주의(Modernism)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도시 문명이 가져다 준 인간성 상실에 대한 문제의식 등에 기반을 둔 문예사조로 알려져 있지만(문덕수, 「모더니즘(modernism)」,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8456>>(검색일자: 2025. 9. 25)), 발표자는 이를 문예 혹은 미술 용어가 아닌 역사 용어로 유럽중심주의·서구중심주의·서구화·근대화와 같은 곁에 놓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한국(근현대)사의 맥락에서 근대주의에 대한 분석과 고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황정아, 「한국의 근대성 연구와 “근대주의”」, 『사회와 철학』31, 2016을 참조.
- 14) 이에 대해서는 허태용, 『실학이라는 생각』, 신서원, 2025를 참조.

## 1) 회담겸쇄환사(1607) 파견까지 히데요시와 이에야스의 이미지 형성

1598년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일본군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임진왜란 7년의 전투는 끝이 났다. 히데요시 사후에 실권을 지닌 이에야스의 이름이 『朝鮮王朝實錄』에 처음 등장하는 사례는 1598년(선조 31) 11월 21일자다. 慶尙左兵使 成允文(생몰년 미상)의 치계에 히데요시 사후 이에야스[家康] 혹은 이야사(二也思)가 대장이라 칭하여 국사를 다스리고 기요마사[加藤清正, 1562~1612] 등을 송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sup>15)</sup> 도산(울산)에서 기요마사가 철수할 때도 히데요리(豊秀秀頼, 1593~1615)와 이에야스 공 등이 있어 일본이 안정되어 있으니 일본이 곧 재침할 것이라는 글을 써놓고 갔다.<sup>16)</sup> 이에 명 提督 劉綎(?~1619)은 일본의 4대신 중에 이에야스가 있으며, 일본에서 내란이 일어날 경우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본이 재침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sup>17)</sup>

그 이후에 조선은 히데요시뿐만 아니라 이에야스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599년(선조 32) 宣祖(r. 1567~1608)는 명 提督 李承勳(생몰년 미상)과의 대화에서, 히데요시(平秀吉)는 이미 죽었지만 關東島에 賊酋 家康이라는 자가 또 있어 대신 썼다고 하니, 도적이 다시 움직일지는 알 바가 없다고 하였다.<sup>18)</sup> 12월에도 이에야스가 재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 別提 魯認(1566~1622)이 상소하였다.<sup>19)</sup> 노인은 이듬해 1월에는 이에야스가 關白<sup>20)</sup>의 임무를 攝行한다고 하고 묘사하였으나,<sup>21)</sup> 여전히 이에야스가 히데요시로부터 재침과 관련한 諭示를 받은 것이 있다고도 판단하였다.<sup>22)</sup> 이때 조선에 송환된 姜沆(1567~1618)은 이에야스가 기요마사와는 다르며 군대를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였지만, 선조와 四道都體察使 兼 都元帥이자 左議政인 李恒福(1556~1618)은 倭賊의 꾀를 강항이 알 리가 없다고 부정하기도 하였다.<sup>23)</sup>

조선의 경계 태세는 쓰시마의 피로인 송환과 강화 요청 조건에서도 드러났다. 쓰시마는 1600년 2월 57명의 피로인을 송환하고, 4~5월까지 강화교섭 관련 회신을 받지 못한다면 7~8월에 대군을 조선에 파견하겠다고 내걸었다. 이때 쓰시마는 계속해서 이에야스의 위광을 내걸어 강화를 요구하였다. 1601년에 접어들어서 조선에 세키가하라 전투(1600)의 결말이 전해졌으며, 쓰시마는 이에야스의 의지에 따른 교섭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였다.<sup>24)</sup> 그러나 조선은 이를 쓰시마의 독단 행위로 지적하고, 이에야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의심하였다.<sup>25)</sup> 또한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 1537~1611]는 이에야스 공이 다이코[太閤] 히데요시의 유명을 받아 화친을 청한다고 밝혔는데,<sup>26)</sup> 조선으로서는 이 정보만으로는 이에야스를 히데요시와 차

15) 『宣祖實錄』卷106, 31年(1598) 11月 21日.

16) 『宣祖實錄』卷106, 31年(1598) 11月 28日.

17) 『宣祖實錄』卷108, 32年(1599) 1月 29日.

18) 『宣祖實錄』卷120, 32年(1599) 12月 17日.

19) 『宣祖實錄』卷120, 32年(1599) 12月 25日.

20) 임진왜란 발발 직후부터 조선은 關白(關伯)이 일본의 최고 실권자라고 통칭하였는데, 후일 에도 막부가 들어서고 쇼군[將軍]이 실권자임을 조선에서는 알면서도 關白 표기로 통용했다. 다만 조선 내에서는 당시 실존했던 간파쿠와 조선의 통칭 관백의 의미가 혼용되는 모습도 보이므로, 각 상황에 맞추어 관백 혹은 간파쿠로 다르게 음차한다.

21) 『宣祖實錄』卷121, 33年(1600) 1月 4日; 1月 7日.

22) 『宣祖實錄』卷123, 33年(1600) 3月 11日. 李廷龜, 『月沙集』卷22 奏, 庚子年(1600) 春, 「請留兵奏」.

23) 『宣祖實錄』卷126, 33年(1600) 6月 15日.

24) 민덕기, 「임진왜란기 대마도의 조선 교섭」, 『동북아역사재단』41, 2013, 119~120쪽.

25) 『宣祖實錄』卷139, 34年(1601) 7月 4日; 20日.

별화할 수도 없었다.

심지어 조선에도 아직 히데요시의 아들인 히데요리가 살아 있으며, 이에야스와는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sup>27)</sup> 명에서 전달된 자문에는 이 사정을 두고 주인(히데요리)은 아직 어리고 나라는 어지러우며, 이에야스가 보좌한 지 오래되지 않아 민심이 온전히 귀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sup>28)</sup> 다만 다른 자문에서는 일본의 상황이 신뢰할 수 없음을 인정함에도, 그에 대한 시비는 조선에서 알아서 가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sup>29)</sup> 이로써 조선이 명에 의지하여 강화를 이루는 전략은 붕쇄되고, 조선이 이에야스에 대해 직접 평가해서 화친을 주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604년 조선은 四溟堂 惟政(1544~1610)을 정탐차 일본에 보냈다(탐적사). 그러나 그 후에도 조선은 여전히 이에야스가 강화를 청한 주체임을 믿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가 바뀌는 것은 領議政 柳永慶(1550~1608)이 이에야스의 말을 일단 신뢰하기로 해 본 뒤였다.<sup>30)</sup> 유영경은 히데요시가 만세의 원수지만, 이에야스는 임진년에 관동의 병졸을 도해시키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므로 히데요시와는 다른 무리일 것이라 판단하였다. 동시에 히데요리가 폐출되었는지도 알 방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1)</sup> 領事 沈喜壽(1548~1622)는 수군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점을 추가로 들어 유영경의 주장에 동조하였고, 선조도 적정을 정탐할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sup>32)</sup> 그 결과 비변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별단으로 공식화하였다.

(비변사의) 별단에서 말하였다. 朴大根(1566~1627)에게 명하여 다치바나 도시마사[橘智正]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소서. ‘(...) 내가 이 건으로 순찰사에게 나아가니 순찰사가 말하길, “(...) 너는 도시마사에게 가서 물어보기를, <작년에 松雲과 孫文彧 등이 일본에 갔을 적에 이에야스를 비록 서로 보았으나 화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이에야스가 진실로 화호를 청한다면 곧 어찌 한 자도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너희 섬(쓰시마)에게 말긴단 말인가? 平秀吉은 곧 우리의 원수지만, 家康이야말로 진실로 그 하는 바가 반대된다. 심지어 피로인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역시 금하지 아니하니, 아국으로서서는 거절할 도리가 없다. (...)’>’ (밑줄: 발표자)<sup>33)</sup>

해당 자료는 1606년(선조 39) 일본과 화호를 다시 맺는 문제를 두고 쓰시마 측 사신인 다치바나 도시마사[橘智正, 생몰년 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도시마사는 쓰시마 번주 소 요시토시[宗義智, 1568~1615]의 휘하로 요시토시의 답서를 가지고 조선에 왔는데,<sup>34)</sup> 조선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쓰시마가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그 가운데 이에야스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쌓였고, 조선은 비로소 공식적인 차원에

26) 『宣祖實錄』卷171, 37年(1604) 2月 23日.

27) 『宣祖實錄』卷165, 36年(1603) 8月 17日.

28) 『宣祖實錄』卷167, 36年(1603) 10月 22日.

29) 『宣祖實錄』卷174, 37年(1604) 5月 21日.

30) 이러한 판단은 유영경의 복인 정권이 지닌 전략적 방법론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조선의 대 쓰시마 외교전략에서 대 이에야스 전략으로 바뀌는 시점과, 그 핵심 인물인 이덕형과 유영경의 성향에 대해서는 김경태, 「임진왜란 직후, 대일강화정책의 성격연구」, 『한국사연구』138, 2007.

31) 『宣祖實錄』卷195, 39年(1606) 1月 23日.

32) 『宣祖實錄』卷196, 39年(1606) 2月 12日.

33) 『宣祖實錄』卷198, 39年(1606) 4月 17日, “別單曰, 令朴大根, 往見橘智正謂曰, (...) 我以事進見巡察使則巡察以爲, (...) 上年松雲、孫文彧等往日本時, 家康雖相見, 而一言不及於和事何也? 家康實欲請和, 則何無一字相及, 而只付於爾島也? 平秀吉, 乃我國之讎, 而家康盡反其所爲, 至於被擄人口連續出來而亦不禁, 在我國無可拒之道.”

34) 『宣祖實錄』卷187, 38年(1605) 5月 12日.

서 이에야스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여기서 조선 측은 이에야스를 두고 조선의 원수인 히데요시와 정반대로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조선의 판단 역시 도시마사가 앞서 발언한 내용을 조선이 받아들인 것이다. 도시마사는 이에야스는 심히 두렵고 거짓이 없어 히데요시가 무고한 백성을 살해하는 것을 매번 한스럽게 여겼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孫文彧(생몰년 미상)은 피로인을 송환하여 히데요시의 죄를 사죄하지 않는 이에야스의 태도에 불만을 표하였다.<sup>35)</sup> 다만 이 시점에서 조선은 이에야스가 히데요시와 반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이해하였다. 임진왜란의 피로인 송환을 막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에야스의 태도를 입증하는 부연서술이었다. 즉 조선은 일본과 화호를 맺으면서, 이에야스가 히데요시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였다.<sup>36)</sup>

조선이 이에야스의 친필 국서가 먼저 작성되기[先爲致書]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조선은 예조판서 관함으로 “이에야스는 임진년과 정유년에 관동의 병졸을 도해하지 못하게 하였고, 나라를 맡고서는 히데요시와는 정반대로 하여 포로가 계속해서 나와도 금하지 않는다”고 적어 보내려 하니, 이에야스와 히데요시가 같지 않다는 증거를 이로써 일본에 공인하려 하였다.<sup>37)</sup> 승문원에서는 이에야스가 源氏를 내세워 국서에 源家康이라 적은 것을 平氏 秀吉과 반대로 하려 한다는 증거로 이해하기도 하였다.<sup>38)</sup>

물론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조선이 일본을 신뢰하거나 대등한 수준의 문명국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비변사는 2건(선위치서 및 범릉적 소환)의 성사를 두고 더 이상 제왕이 이적을 대우하는 도리로 끝내 거절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sup>39)</sup> 이러한 조선의 입장은 도시마사에게도 전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마사도 이 자체에 대한 반론을 진행하지는 않았다.<sup>40)</sup> 즉 조선의 입장은 표면적으로는 聖인이 금수와도 같은 夷狄이 스스로 굽히고 들어 오기를 청한다면, 그들을 포용한다는 차원의 화이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여전히 이에야스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는 사헌부 등은, 만약 이에야스가 조선을 시험하려는 뜻이 있다면 이에야스가 곧 히데요시가 될 수 있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sup>41)</sup> 하지만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담검쇄환사는 파견되었고, 조선은 이에야스를 ‘일단’ 신뢰하기로 하였다.

## 2) 에도 막부 정권에 대한 조선 조정의 인식

회담검쇄환사가 무사히 임무를 마친 이후, 이에야스와 그가 세운 에도 막부에 대한 평가가 긍정 일변도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2대 막부 쇼군인 히데타다[德川秀忠, 1579~1632, r. 1605~1623]에게 전위한 건에 대해서도 平氏를 혁파했다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히데요시 사후 平姓(平氏)을 갈아치웠다는 서술이 늘어난 것이다.<sup>42)</sup> 이전까지는 히데요리나 히데요시 계파가 막부의 권력에 관여하였을 것이라 의심하던 태도<sup>43)</sup>와는 상반되는 태도다. 이에야스와

35) 『宣祖實錄』卷158, 36年(1603) 1月 2日.

36) 『宣祖實錄』卷198, 39年(1606) 4月 5日.

37) 『宣祖實錄』卷199, 39年(1606) 5月 12日. 다만 선조는 비망기를 통해 이에야스[家]와 다이라[平]의 형세를 자세히 알기가 어려우며, 도시마사의 말에는 거짓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여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조선의 ‘2건’, 즉 범릉적 송환과 이에야스의 국서 요구도 이 맥락에서 이루어졌다(『宣祖實錄』卷199, 39年(1606) 5月 17日).

38) 『宣祖實錄』卷205, 39年(1606) 11月 12日.

39) 『宣祖實錄』卷203, 39年(1606) 9月 3日.

40) 『宣祖實錄』卷203, 39年(1606) 9月 13日.

41) 『宣祖實錄』卷204, 39年(1606) 10月 25日.

42) 『宣祖實錄』卷213, 40年(1607) 閏6月 29日; 『光海君日記』卷6, 光海君 1年(1609) 4月 21日 등.

히데타다가 주도하여 히데요리를 처단했다는 소식도 조선에 전해졌는데,<sup>44)</sup> 조선은 이를 바탕으로 히데타다가 스스로 소방(조선)의 원수를 처단했다고 말한다고 명에 奏聞하였다.<sup>45)</sup>

한편 조선은 히데요시가 源氏에 의해 멸망당했다는 정보를 유통하였다.<sup>46)</sup> 이는 명과의 공식 자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倭酋 이에야스가 平氏를 멸하고 그 자리에 섰으며, 히데요시와는 반대로 나왔다고 하였다.<sup>47)</sup> 1617년 회답겸쇄환사의 종사관이었던 李景稷(1577~1640)은 張維(1587~1638)와의 대화에서, 의리대로라면 일본의 산천과 초목 그 자체가 원수이니 분통이 터진다고 평가하면서도, 平氏가 망하고 源氏가 들어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려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sup>48)</sup> 이후 조선은 이에야스가 히데요시의 무리를 멸망시켰으니 더 이상 조선과는 원수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물론 조선이 구태여 源氏에 집중한 까닭은 이뿐만이 아니다. 특히 에도 막부가 3대째 승습한 이에미쓰(德川家光, r.1623~1651) 시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은 에도 막부의 안정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일본에 보내는 회답사를 겸쇄환사로 바꾸는 건에 대해 달린 사평에서는, 조선이 세력이 미약한 3대 쇼군 이에미쓰를 후원하는 것처럼 하고 말았다고 비평하였다. 또한 이를 (조선이) 원수에 대한 복수심을 풀어버린 지 오래된 모습이라 평가하였다.<sup>49)</sup> 그만큼 조선이 에도 막부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약해졌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한 조정의 논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인조)이 말하였다. “왜정을 내가 보니, 전날 왜노가 나라를 전하는 데 일찍이 몇 세대에 걸쳐 계속 세습하지 않아, 혹은 1세만에 망하고 혹은 2세만에 망했다. 지금 이미 3세를 전하였는데, 그 기세가 히데요시와 같을 수가 없다. 히데요시는 스스로 그(일본)의 60주 군병을 얻었으므로 그를 손 안에 두었기에 호령하기도 스스로 하였다. 그러므로 이웃 나라를 범하고자 하는 것도 그(개인)의 뜻과 같았다. 이 관백이란 자는 지위가 히데요시와 같지 아니하며, 호령 역시 히데요시와 같지 아니하다. 이것이 다른 까닭이다.”<sup>50)</sup>

위 발언은 1635년(인조 13) 11월 6일 일본의 정세를 둘러싸고 仁祖(r. 1623~1649)와 集義沈之源(1593~1662) · 司諫 閔應亨(1578~1662)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인조가 신료를 설득하기 위해 내세운 발언이다. 대간에 속해 있던 심지원과 민응형은 玄方[玄方, 1588~1661]의 한성상경(1629)이라는 선례를 경계하며, 에도 막부가 갑작스레 조선과 단절하였음(세견선 파견의 중단 상황)이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반대로 인조는 에도 막부가 3대까지 세습한 것을 두고 히데요시와 위세가 다르며, 관백의 지위도 호령도 히데요시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렇듯 인조는 에도 막부가 가지는 세습권력의 특성을 강조하며, 이들이 히데요시와 같이 전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 설득하고자 하였다. 비록 조선에서는 전쟁이 다시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경계하기는 했지만, 해당 논의에서 심지원과 민응형은 막부 세습 권력

43) 『宣祖修正實錄』卷40, 39年(1606) 5月.

44) 『光海君日記』卷33, 7年(1615) 閏8月 12日.

45) 『光海君日記』卷40, 9年(1617) 5月 30日.

46) 『承政院日記』26冊, 仁祖 7年(1629) 5月 6日.

47) 張維, 『谿谷集』卷22 奏本, 「辨誣奏本」, 崇禎 2年 己巳(1629).

48) 張維, 『谿谷集』卷5 書, 「送李從事尙古奉使日本序」.

49) 『光海君日記』卷116, 9年(1617) 6月 26日.(해당 기사는 정초본에는 없으며, 중초본에만 실려 있다.)

50) 『承政院日記』50冊, 仁祖 13年(1635) 11月 6日, “上曰, 倭情, 以予觀之, 自前倭奴之傳國, 未嘗有累世而相承者, 或一世而亡, 或二世而亡矣. 今則已傳三世, 其勢不能與秀吉同. 秀吉則自我得之六十州軍兵, 在其手中, 而自爲號令, 故欲犯隣國而如其意, 欲摧其兵勢而如其意. 此關伯者, 則地位與秀吉不同, 號令亦不與秀吉同, 此所以異也.”

이 가지는 속성에 대한 반론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인조는 이날 일단 대간의 반론을 받아들여, 자신의 주장이 일본 측의 돌발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음날인 7일, 인조는 일본 측이 조선에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쪽의 상황을 걱정하여 의정부에서 논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의정부에서는 대간과는 달리 적이 움직일 형세가 없다고 답했다. 그 중에서도 禮曹判書 洪瑞鳳(1572~1645)은 이에야스가 자리를 잡고서 히데요시가 생명을 죽이고 이웃나라를 친 것을 죄안으로 내걸었는데, 현 관백은 그 이후 세대를 거둬주고 있어 스스로를 지킬 겨를도 없을 것이라 주장하였다.<sup>51)</sup>

이 시기를 전후하여, 조선 조정에서 에도 막부의 3대 세습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 보인다. 조선에서는 예조판서 홍서봉이 전쟁을 일삼는 나라에서 3세를 전하니 드문 일이라고 평하였고<sup>52)</sup>, 인조도 관백(이에미쓰)은 평범한 자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며, 兵革을 끄찍이 싫어한다고 말하였다.<sup>53)</sup>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면, 왜정이 사나워질 것을 경계하는 이들은 대간이며, 조정의 대신은 이미 에도 막부의 안정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인조도 일본에서 변란이 일어난다면, 관백이 3대를 세습하여 사치가 심해지고 있으니 사나운 자[桀驁]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상황이 근심이 생길 것이라는 쪽으로 방향성을 바꾸었다.<sup>54)</sup> 이는 곧 관백의 세습이 무너지는 상황이 위험하다는 인식이었다.

그러한 까닭에, 조선에서는 에도 막부와 그 시조인 이에야스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정축하성(1637) 이후의 왜정을 두고 左議政 崔鳴吉(1586~1647)은 에도 막부가 40년간의 우호를 맺었으니 마음대로 침범할 리가 없다고 평하였다. 같은 자리에서 戶曹判書 沈悅(1569~1646)은 현 관백이 卞秀吉과 비할 수 없고, 제 나라도 제대로 탄압하지 못하니 타국을 침할 리가 없다고 발언하였다.<sup>55)</sup> 1642년(인조 20) 差倭의 협박을 두고도 비변사는 일본의 大君(이에미쓰)은 先祖를 받드는 데 정성을 다하고 있으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祖訓을 어길 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sup>56)</sup> 1643년(인조 21) 통신정사 尹順之(1591~1666)는 일본의 사정에 대해 가장 먼저 관백이 3대를 이어오고 있으므로 우려할 것이 없다고 보고하고, 인조 역시 막부의 3대 세습이 일전에 있었던 일인지 제일 먼저 확인하였다.<sup>57)</sup> 같은 통신사행에 참가했던 趙綱(1586~1669)은 히데요시가 미친 듯이 날뛰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백성을 괴롭히며 하늘을 쏘고[射天] 이웃을 괴롭혔다[誑隣]고 묘사하였다. 그 뒤에 그는 의로운 무리[義旅]가 일어나 히데요리를 가두고 천도를 뒤집었으니, 백성들이 이에야스의 공로를 잊지 못한다고 하는 시를 한 편 지었다.<sup>58)</sup>

또한 이러한 평가는 조선의 왕이 바뀐 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전 동래부사 임의백이 아뢰기를) “源家(이에야스의 일가: 발표자)가 히데요시를 토벌할 적에, 맨 먼저 弑君의 죄를 내걸고, 다음번으로 鮮人을 마구잡이로 죽인 죄를 물었습니다. 그 자손이 어찌 祖訓을 어기겠습니까. 源家が 그 나라에 오랫동안 있는 것이 실로 아국에게 이롭습니다.” 상(효종)이 이르기를, “전에 듣기로 그 나라에는 卞哥의 양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이 아직 있는가? 또 그

51) 『承政院日記』50冊, 仁祖 13年(1635) 11月 7日.

52) 『仁祖實錄』卷20, 7年(1629) 閏4月 24日.

53) 『仁祖實錄』卷31, 13年(1635) 8月 9日; 11月 7日.

54) 『承政院日記』57冊, 仁祖 15年(1635) 4月 14日.

55) 『仁祖實錄』卷36, 16年(1638) 3月 20日.

56) 『承政院日記』81冊, 仁祖 20年(1642) 4月 11日.

57) 『仁祖實錄』卷44, 21年(1643) 11月 21日.

58) 趙綱, 『東槎錄』, 「六月初七日到大坂周長老爲僮事來投謁翌日求詩作大坂行贈之」(51).

기세가 있는가?” 임의백이 아뢰기를, “그 사람(平哥)은 아직 있고 마음으로는 怨毒을 품지만, 관백의 친족이 모두 국정을 잡았으므로 우려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밑줄: 발표자)<sup>59)</sup>

위 기사는 孝宗(r.1649~1659)이 전 東萊府使 任義伯(1605~1667)에게 일본의 사정을 묻는 장면이다. 여기서 源家は 에도 막부의 지도자인 도쿠가와 가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임의백은 이들이 히데요시의 죄를 엄하게 물었다고 표현하였다. 첫 번째로 내건 점이 弑逆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이에야스 정권이 대내적으로 정통성이 있는 집단이라 이해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임의백은 그 자손이 이에야스의 뜻을 거스를 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조선 조정은 관백(에도 막부)가 平哥(=平氏를 가진 이들, 즉 히데요시의 일족)이 권력을 잡도록 내버려둘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허목(許穆, 1595~1682)에 따르면, 이에야스는 차분하고 의지가 굳으며 지혜가 많고 용병술에 뛰어났다고 한다.<sup>60)</sup> 후일 이덕무는 히데요시가 일본인들의 습성을 이용해 막강한 寇賊을 만들었으며, 이에야스가 이를 제어하여 분수를 지키고 유순한 풍습을 되찾았다고 평가하였다.<sup>61)</sup> 조선에 건너온 막부 측 인사들도 이 점을 적극 활용하여 조선과 에도 막부의 관계, 특히 일본 측 창업군주인 이에야스의 업적을 강조하거나,<sup>62)</sup> 히데타다가 이에미쓰에게 전위하고 10년이 지나서 나라가 편안하였음을 드러내었다.<sup>63)</sup>

한편 조선 조정은 그들이 이해한 에도 막부의 성격을 청국에도 그대로 밝혔다.

옛적에 倭寇가 우리에게 길을 빌려달라 하여 中國을 범하고자 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의로 끊어버렸습니다. 이는 병사를 일으킬 단서가 우리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구는 우리 八路를 함락시키고 우리 만백성을 해치니, 스스로 이로써 계책을 얻었다고 여겼습니다. (...) 지금은 源氏가 平氏를 쫓아내 없애버리고 우리와 더불어 통호한 게 30년 간인데,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이 왕성함이 平秀吉 시절의 배입니다. 하늘의 도가 군대를 싫어하여 선을 돕고 악을 벌함이 이로써 명확하지 않겠습니까?(밑줄: 발표자)<sup>64)</sup>

1636년(인조 14), 조선은 청국 흥타이지[皇太極, r. 1626~1643]에게 답서를 보내며 이를 檄文으로 칭했다. 격문의 주 요지는 청국이 조선을 억압하려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히데요시가 등장한다. 조선은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킨 원흉인데, 그 명분이 바르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그 때문에 히데요시 정권을 밀어내고 권력을 잡은 에도 막부(源氏)에 대해서는, 히데요시 시절보다 훨씬 삶이 풍족하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히데요시는 하늘이 벌

59) 『孝宗實錄』卷14, 6年(1655) 1月 25日, “源家之伐秀吉也, 首數弑君之罪, 次數濫殺鮮人之罪, 其子孫, 豈反其祖訓. 源家之久在於其國, 實我國之利也. 上曰, 前聞其國, 有平哥養子云, 其人尙存, 且有氣勢乎? 義伯曰, 其人尙存, 心懷怨毒, 而關白親族, 皆執國政, 似無他虞矣.”

60) 許穆, 『記言』卷36 東事3, 「黑齒列傳」.

61) 李德懋, 『靑莊館全書』卷64 蜻蛉國志1 「人物」.

62) 差倭 다치바나 나리마사[橘成正]은 이에야스가 히데요시의 난을 평정하고 창업하여 기틀을 열었으니, 일본인이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국의 태평함이 이에야스의 덕이라고 하였다(『邊例集要』卷2 送使, 癸巳(1653)). 그런데 일본이 강조하는 지점은 이에야스가 전쟁을 멈추었다는 공덕이자, 권현당(權現堂: 다이곤젠 이에야스)이 조선을 위해 복수한 공덕이 있다는 점이었다(『邊例集要』卷2 送使, 甲子(1684)).

63) 『仁祖實錄』卷26, 10年(1632) 4月 7日. 원문에는 관백을 계승받은 히데타다의 아들이 家忠으로 등장하지만, 이는 실록 측 오기다. 해당 기사는 동래부사 홍입이 쓰시마 왜인 平智遠의 말로 계문한 것이다.

64) 『인조실록』권32, 14년(1636) 6월 17일, “昔者倭寇, 假道于我, 欲犯中國, 而我國以義斥絕. 是構兵之端, 非自我始也, 而倭寇陷我八路, 殘我萬姓, 自以爲得計矣. (...) 今也源氏, 黜滅平氏, 而與我通好三十年間, 國富民盛, 倍於平秀吉之時. 天道厭兵, 佑善罰惡, 茲非其明效耶?”

해야 할 악으로 등장하며, 이에야스와 그 정권은 썩에 가깝게 묘사하였다.

위 사료만으로 보면, 시기상으로 조선이 일본을 이용해서 후금(청)에 위세를 떨치거나, 군사 동맹을 한 것처럼 위세를 보이려는 때와 겹친다.<sup>65)</sup> 하지만 위 사료의 논리는 일시적인 특징이 아니라, 조선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姜弘立(1560~1627)이 이끄는 군대가 후금군에 항복하던 때(사르후 전투, 1619), 만주의 遼人 董大海와 문답하면서 일본과 通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강홍립은 질문에 대해, 히데요시가 조선의 원수지만 이에야스가 그 족속을 다 멸망시켜 옛 우호를 쫓기를 원하고, 문서를 공손하게 보내며 조선을 대국으로 부른다고 답하였다.<sup>66)</sup> 이에야스에 대한 평가는 이에야스의 일족인 源氏가 히데요시와 그 일족 倭氏를 몰아낸 것에 있다. 해당 기사가 병자통신사(1636~1637)는커녕 3차 회담검쇄환사 파견(1624) 이전, 즉 이에미쓰의 쇼군 습승 이전인 것으로 보아, 조선 조정의 공식적인 에도 막부 인식은 이미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과 일본은 이에야스가 히데요시를 몰아냈다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국의 우호관계 기틀로 삼았다. 조선이 에도 막부를 긍정하는 최소한의 전제는 결국 창업주 이에야스가 부덕한 히데요시를 몰아내어 원수를 대신 갚아주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에야스와 에도 막부가 일본 내에서 정통성을 지닌 정권이라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그러한 전제 위에서 있던 '정통 권력'인 에도 막부가 세습을 거듭하여 무너지지 않는 한, 조선 후기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 III. 조선의 일본 지배세력 이해 및 源氏 세력의 계보화

#### 1) 조선의 일본 우지[氏] 이해와 源平

일본 4대 귀족 겐페이토키츠[源平藤橘]은 이미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85]부터 그 위상이 확립되었으며,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고려 왕조(918~1392)에서도 그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李崇仁(1347~1392)도 일본에 藤橘原平 四姓의賢이 있음을 시로 남기기도 했다.<sup>67)</sup> 하지만 조선 전기에는 그저 일본인들의 인명을 단순히 따오거나, 源氏와 倭氏 외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고 宗氏의 倭氏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조선 전기에는 일본의 귀족 혹은 무사들이 무슨 성씨를 쓰는가에 조선에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며, 그 성씨에 따른 대우의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조선은 단지 일본 내부에 몇몇 세습권력자들이 있음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sup>68)</sup>

그런데 히데요시가 일본 최고 권력자로 등극하면서 新王을 자처하고, 그가 주도하여 일으킨 전쟁에 접어들면서 조선은 히데요시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조선은 히데요시의 倭氏에 대해 의미를 부도덕한 찬탈자로 만들어야 했다.<sup>69)</sup> 조선이 倭氏가 지닌 부정적인 이미지를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자연스럽게 조선에서는 倭氏가 아닌 다른 성씨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때부터 일본인의 인명 체계에 대해 본격적으

65) 한명기, 「조선시대 한중일 관계와 상호인식 추이」, 『한국학연구』57, 2020.

66) 趙慶男, 『續雜錄』卷1, 萬曆 47年, 光海君 12年(1619).

67) 李崇仁, 『陶隱集』卷3 詩, 「奉送羅判事使日東(本官上章自行)」

68) 임현채, 「조선 전기 조선 조정의 일본 지배층 인식: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人名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82, 2023.

69) 임현채, 「壬辰倭亂期 조선과 일본의 豊臣氏 활용과 그 인식」, 『한일관계사연구』71, 2021a.

로 기록을 남겼다.

전쟁이 끝난 후 성씨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인물은 강항이었다. 그는 일본의 셋쇼[摂政]에 대해 소개하면서, 예전에는 네 大姓인 후지와라(藤)·다치바나(橘)·미나모토(源)·다이러(平)만이 할 수 있고 세습되어 내려왔다고 밝혔다. 히데요시의 경우는 국왕(덴노)에게 4대 성 중 하나를 받게 해 달라 하였으나, 왕소에서 허락받지 못하여 平氏를 자칭하였다가 후에 도요토미(豊)로 고쳤다고 기록하였다.<sup>70)</sup> 한편 『再造藩邦志』에서는 위 4대 巨族이 國王殿(=關白 혹은 博陵侯)이 되고자 다투었다고 하였다.<sup>71)</sup>

趙慶男(1570~1641)의 『亂中雜錄』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다. 그에 따르면, 왜의 풍속에는 藤·橘·源·平을 귀족이라 하며, 품격에 따라 성을 바꾸는데 히데요시의 경우도 4번 바꾸어 平이라 한 것이다. 쓰시마 도주인 요시토시가 平氏를 쓴 이유도 히데요시와는 상관이 없는 위와 같은 까닭이며, 그가 平行長의 사위이기 때문일 것이라 추정하였다.<sup>72)</sup> 조선에서도 본격적으로 일본의 우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후에 통신사가 오가게 되면서 일본의 성씨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었다. 南龍翼(1628~1692)은 『扶桑錄』의 聞見別錄에 적기를, 일본 안에 源·平·藤·橘 네 성씨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는 시에서 이 4대 성씨를 진시황이 보낸 徐市의 후예라고 이해하였다.<sup>73)</sup>

조금 앞서 조경남이 지적하였듯이, 일본인들은 우지를 바꾸어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일본인들의 성은 정해진 바가 없고, 執政이나 主將 등 따르는 이의 성을 쓰는 경우가 많아 형제 이면서도 성이 다른 자가 있고 성이 다르다해도 같은 사람이 생기기도 하였다.<sup>74)</sup> 일례로 호행정관인 平如卿은 본래 藤如卿이었는데, 호행정관의 임무를 맡으면서 갑자기 平氏를 사용하였다. 또한 그의 아들은 사이한[裁判]인데 藤哥 혹은 平哥라 불린다고 한다. 趙曦(1719~1777)은 일본인들이 성씨를 쉽사리 갈아치우기 때문이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인지 의문을 가졌다.<sup>75)</sup>

일본의 성씨 개념에 대해 우지[氏]를 넘어서 묘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려는 흔적도 보인다. 남용익은 일본에 또 다른 氏號라는 개념이 있어, 쓰시마 도주 요시나리(義成)를 宗氏라 하고 도춘(道春: 라잔[羅殘])을 林氏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또 사는 곳을 따서 씨를 삼으니 그 예시로 아베씨[安部氏]와 노마씨[埜間氏]를 들었다.<sup>76)</sup> 여기에서 일본의 '묘지'에 해당하는 개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조선인들의 묘지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는 않았다. 조선에서는 本姓이라는 용어로 묘지를 묘사하려는 모습도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강항은 하시바[羽柴]를 히데요시의 本姓으로 소개하였다.<sup>77)</sup> 이익도 히데요시의 본성은 하시바로, 히데요시는 (일본의) 귀한 성씨(平氏)를 멋대로 칭한 것이라 하였다.<sup>78)</sup> 그런데 남용익은 쓰시마의 본성이 平氏지만 스케쿠니[助国]에 이르러 처음으로 宗氏를 성으로 삼았다고 하였다.<sup>79)</sup> 李德懋(1741~1793)는 平秀吉의 本姓이 도요토미[豊臣]이며, 源家康의 경우 氏를 호시나[保科]로 하다가 마쓰다이라[松平]로 고쳤다고 기

70) 姜沆, 『看羊錄』 賊中奉疏 「倭國八道六十六州圖」.

71) 申晷, 『再造藩邦志』卷1.

72) 趙慶男, 『亂中雜錄』卷3, 乙未年(1595) 3月 2日.

73) 南龍翼, 『扶桑錄』 乙未年(1655) 9月 10日.

74) 慶暹, 『海槎錄』下 丁未年(1607) 7月 17日.

75) 趙曦, 『海槎日記』, 甲申年(1765) 6月 14日.

76) 南龍翼, 『扶桑錄』 聞見別錄 風俗, 「雜制」.

77) 姜沆, 『看羊錄』 賊中奉疏 錄, 「賊中聞見錄」.

78) 李漢, 『星湖僊說』卷15 人事門 9, 「平道全」.

79) 南龍翼, 『扶桑錄』 聞見別錄, 「對馬島主世系」. 작자 미상의 『癸未東槎日記』에서 쓰시마가 본성을 平氏라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癸未東槎日記』, 癸未年(1643) 7월 7일).

록하였다.<sup>80)</sup> 이들의 사례로 미루어 보면, 조선에서는 4대 거족인 源平藤橘을 제외한 ‘성’을 본성으로 이해한 정도에 그쳤다. 朴趾源(1737~1805)이 유키나가를 小西行長, 기요마사를 加藤清正이라 기록하는 등<sup>81)</sup> 예외적인 경우가 조금씩 보이기는 하지만, 개항기 이전의 조선에서 이러한 변화는 본격적이지는 않았다.

그만큼 조선에서는 4대 성씨에 집중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源氏와 平氏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기록을 많이 남겼다. 비교적 藤氏에 대한 언급은 적은데, 히데요시 집권기를 제외하고는 藤原氏가 여전히 구계[公家]의 간파쿠[関白]직을 맡고 있는 있지만, 조선이 일본의 간파쿠에 대해 굳이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었다. 이들이 일본의 최고 권력자 집단에서 밀려난 지 오래되었으며, 조선의 통교 대상은 구계가 아니라 막부이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源氏와 平氏는 막부의 창설, 즉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지닌 혈통과 관련한 권력대립에 직결된 성씨였고, 조선에서도 이들의 대립과 흥망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일본에 가는 통신사 일행은 안토쿠 덴노[安徳天皇, r. 1180~1185]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였다. 통신사 일행이 지나가는 길에는 아카마가세키[赤間関]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안토쿠 덴노의 사당이 있었다. 사명당 유정은 이를 보고 안토쿠 덴노를 애도하는 <渡赤關海見安皇遺像>라는 시를 남겼고, 후기 통신사 일행도 이에 차운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가 되었다.<sup>82)</sup> 이후로 안토쿠 덴노에 대한 기록이 자연스레 늘어났고, 안토쿠 덴노의 사망이 源平 대립의 시초이기도 했기 때문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 1147~1199]와 다이랴노 기요모리[平清盛, 1118~1181]의 대결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덴노) 다카쿠라[高倉]가 졸하고 아들 안토쿠[安徳]가 있는데 그 해 3세였다. 겐지[源氏]와 헤이시[平氏]가 미노노쿠니[美濃州]에서 싸웠는데, 기요모리[清盛]가 죽었으니 기요모리가 국정을 잡은 게 무릇 23년이었다. 헤이시들은 안토쿠를 끼고 서해로 달아나 또 세 번 싸워 모두 졌다. 안토쿠의 조모인 고시라카와[後白河] (덴노의) 후가 안토쿠를 안고 바다로 뛰어 들었다. 국인이 그를 가련히 여겨 나가토노구니[長門州]에 사당을 세우고 매년 그를 제사지냈다. 요리토모는 곧 국정을 총괄하고 중병을 장악하여 간토[關東]의 가마쿠라[鎌倉]에 있으면서 스스로를 세이이다이쇼군[征夷大將軍]이라 칭했다. 이로부터 군국과 정사가 모두 겐지[源氏]에게 돌아갔다. 倭主(덴노)가 권력을 잃음이 이로부터 비롯하였고, 이웃나라는 겐지[源氏]를 일본왕으로 하였다.<sup>83)</sup>

위 기사는 安鼎福(1712~1791)의 『東史綱目』에서 안토쿠 덴노의 몰락과 가마쿠라 막부의 시작을 다룬 기사다. 이는 통신사들의 기록을 최종적으로 모아 정리한 것이다. 통신사행에서 조선인들은 안토쿠 덴노에 공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혼슈에 들어간 1763년 통신사까지 화답시와 시문창화의 형태로 안토쿠 덴노를 기렸다.<sup>84)</sup> 한편 일본의 새로운 권력 체제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姜弘重(1577~1642)은 요리토모가 등장한 이후 덴노가 국사를 살피지 않고 간파

80) 李德懋, 『靑莊館全書』卷64 蜻蛉國志 1, 「人物」. 원중거도 히데요시의 본성을 도요토미라고 기록하였다(元重舉, 『和國志』卷1 「秀賊本末」).

81) 朴趾源, 『燕巖集』卷2 煙湘閣選本, 「答巡使書」(2).

82) 정은영, 「안덕천황(安徳天皇) 기사 탐색에 드러난 조선후기 통신사의 일본 정치체제 인식」, 『인문학연구』32, 2019.

83) 安鼎福, 『東史綱目』9下 乙巳年(1185) 12月, “高倉卒, 子安徳立, 年三歲. 源氏平氏戰於美濃州, 清盛死, 清盛執國政凡二十三年. 平氏挾安徳奔西海, 又三戰皆敗. 安徳祖母後白河后, 抱安徳投海. 國人憐之, 立祠長門州, 歲祀之. 頼朝即摠國政握重兵, 居關東之鎌倉, 自稱征夷大將軍. 自是, 軍國政事皆歸源氏. 倭主失權始此, 而隣國咸以源氏爲日本王.”

84) 한태문, 「조선후기 通信使와 四溟堂」, 『어문연구』64, 2010, 249~252쪽. 안토쿠 천황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다룬 구체적인 연구는 정은영, 주 82)의 논문을 참조.

쿠(관백)에게 전임하였다는 기록을 남겼다.<sup>85)</sup> 黃屎(1604~1656)는 세이와 덴노[清和天皇, r.858~876] 때 源氏가, 간무 덴노[桓武天皇, r.781~806] 때 平氏가 등장하였으므로 이들은 모두 덴노의 후손이지만 서로 공격하였다고 하였다.<sup>86)</sup> 조선에서는 이 대결을 옛날 源平이 싸우던 일이라 표현하였는데,<sup>87)</sup> 그 결과 국사가 源氏에게 기울어지는 현상을 빚었다.

源平의 대립과 그 결과는 조선에도 큰 의미가 있었다. 이 이후 源氏는 당시(에도 막부)까지 이어져 내려온 4~500년 가량의 유구한 정통성을 지닌 권력자 집단이 되었다. 또한 平氏 역시 그들과 대립할 만한 명문가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래서인지, 조선인들은 겐페이 대립에 대해서도 종종 짚막하게 시를 썼다.<sup>88)</sup> 그 내용 자체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과거에 일본 내부에서 정통 권력을 둘러싼 대립이 있었음은 조선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 2) 조선이 바라본 에도 막부의 정통성

앞서 살펴보았듯 조선인들은 源氏의 지속성에 주목하였다. 다만 막부의 지도자가 바뀌는 현상, 즉 가마쿠라-무로마치-에도 막부의 변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조선 전기의 서적인 『海東諸國記』에서는 일본의 남북조 시대를 전후하여 또다른 平氏(執權北條)가 일어났다고 밝혔다.<sup>89)</sup> 그럼에도 후대에는 이 부분은 더욱 소략화되었다. 미나모토노 진잔(源仁山,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 1305~1358)의 범명)이 源氏의 일파라는 정보는 조금씩 기술하지만, 이들이 平氏를 진압했다는 기록은 『해동제국기』와는 달리 따로 보이지 않는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源氏가 히데요시 이전까지 줄곧 세습해온 일관된 정치세력이라는 점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조선은 '단일 성씨인 源氏가 400~500년 가까이 장기 집권한 세력'이라는 식으로 일본 정치체제를 이해하였다.

이는 源氏를 하나의 계통으로 계보화한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 기록에는 源氏의 시조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부터 계보를 추적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조경은 『東槎錄』의 「題日本姓氏錄」에서 源氏가 번성하고 山城主(=덴노)도 源氏라 이해하고 있으며, 源氏야말로 일본에서 가장 번성한 세력이고 당대(에도 막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그들의 계파인 세이와겐지[清和源氏] · 야마토겐지[大和源氏] · 혼간겐지[本願源氏] · 가마쿠라겐지[鎌倉源氏] · 아시카가겐지[足利源氏]에 대해서도 기록하였으며, 요리토모로부터 11대 후인 진잔의 계보를 다루면서 요시미쓰[義滿, 道義]와 요시마사[義政] 등 조선 전기에 특별히 중요했던 인물도 부기하였다.<sup>90)</sup> 이덕무는 위 내용을 보강하여, 4대 성의 시초를 다루면서 倭皇(=덴노)도 源姓이며 관백(간파쿠)도 세이와겐지의 일파라 하였다. 그 외에 平姓은 한때는 가장 큰 성이었는데 쇠퇴하였고, 藤姓은 中世부터 번성하였고 橘姓은 넷 중 가장 숫자가 적다는 점을 짚었다.<sup>91)</sup> 즉 현재까지 源氏가 핵심 권력자로 이어져 내려온 것을 전제로, 조선에서는 源氏에 대한 분석을 깊이 하였다.<sup>92)</sup>

85) 姜弘重, 『東槎錄』 乙丑年(1625) 3月 5日.

86) 黃屎, 『東槎錄』 丙子年(1636) 11月 18日.

87) 洪禹載, 『東槎錄』 壬戌年(1682) 7月 10日; 李瀾, 『星湖僿說』卷18 經史門 1, 「日本史」.

88) 車天輅, 『五山集』續集 卷2 七言律詩, 「用老杜諸將五首韻賦(三首)」; 金世濂, 『槎上錄』, 「倭京次權學官韻」 등.

89) 申叔舟, 『海東諸國記』, 「日本國紀 天皇代序」, “後醍醐天皇, (….) 三年辛未, 改元元弘. 是年, 源氏攻平氏, 天皇密出京城避之. (….) 至是, 源仁山, 又攻逐平氏, 遂執國政.”

90) 趙綱, 『東槎錄』, 「題日本姓氏錄」. 許穆의 『記言』이나 이금익(李肯翊, 1736~1806)의 『燃藜室記述』 등에도 같은 묘사가 있다.

91) 李德懋, 『靑莊館全書』卷64 蜻蛉國志 1 「姓氏」.

몇몇 인물들은 일본에서 源氏가 장구한 것에 대한 촌평을 남기기도 하였다. 허목은 일본에서 源氏가 수백 년을 이어져 왔는데, 그 까닭이 딱히 德治를 했기 때문은 아니고 그저 地利에 있다고 하였다.<sup>93)</sup> 다만 조선에서는 源氏의 지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류도 강했다. 조경은 源氏와 平氏가 서로 원수지간이며, 진산[仁山]이 平氏를 죽이고 이에야스[家康]가 히데요리[秀頼]를 죽인 것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서 그는 하늘이 平에 박하고 源에 후한 것이 아닌, 仁과 暴에 따른 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sup>94)</sup> 柳夢寅(1559~1623)은 源氏가 平氏를 물리치자 조선 사신을 빌어 자국을 무겁게 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두고 源氏가 조선에 예물을 바쳤고 平氏は 조선을 원수로 여겼기 때문이라 하였다.<sup>95)</sup> 李瀾(1681~1763)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히데요시가 大明으로 쳐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일본이 본래 源氏의 나라이며, 이에야스로 권력이 돌아가는 것은 필연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源氏가 아닌) 히데요시가 쓸 수 있는 수는 대명을 공략하는 것뿐이었다.<sup>96)</sup>

또한 조선인들은 종종 源氏를 칭송하고 平氏를 멸망시킨 행위를 노래하곤 했다. 유몽인은 이경직을 전송하면서 요망한 족속이 말라 줄어들고 源氏가 平氏의 강역을 지녔다는 대목을 넣어 현 일본을 묘사하였다.<sup>97)</sup> 金世濂(1593~1646)은 이에야스의 전장인 源平의 싸움(세키가하라 전투를 지칭)에 후시미[伏見]가 먼저 함락되고, 유키나가[行長]의 일당은 화를 스스로 산 것이라 평했다. 그에 따르면, 비록 조선에서 도요토미[豊臣]를 산 채로 잡지 못하였지만 源氏가 그 공이 대단하여 백세의 종사를 보전하였다.<sup>98)</sup> 그만큼 源氏의 강성함은 平氏를 몰락시킨 행위에 대비함으로써 빛났다.

한편 平氏 자체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와 다이랴노 기요모리의 대립, 平氏의 기원을 제외하면 그 가문에 대한 서술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까닭에 平氏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히데요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용익의 『부상록』 『關白次序』에서 일본의 지배자들을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平氏의 세계를 언급하였다. 처음으로 등장한 인물은 기요모리와 그 일파지만,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은 다이랴노 노부나가[平信長]였다. 남용익은 그에 대해서 오다[織田]를 氏로 하는 기요모리의 서파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노부나가 平氏는 1대 15년으로 하며, 다이랴노 히데요시와 다이랴노 히데요리[平秀頼]를 별도의 平氏 2대 34년으로 하였다. 히데요시의 출자는 파악하지 못했다.<sup>99)</sup>

기요모리를 제외하고, 다른 平氏에 대한 언급이 보이는 사료들도 있다. 무로마치 막부 직전에 종종 平氏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하며,<sup>100)</sup> 源氏와 平氏가 서로 치고받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는 인식은 있었다.<sup>101)</sup> 하지만 기요모리, 노부나가, 히데요시, 히데요리 이외의 平氏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지칭하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가마쿠라-무로마치의 전환기에 등장한 平氏가 싯켄호조[執權北條]라는 점을 짚은 사례도 거의 없다.<sup>102)</sup> 오히려 平

92) 다만 일본 덴노의 경우 현재까지도 따로 우지나 가바네, 묘지 등을 두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 측에 정확한 정보가 없었거나, 요리토모 이후 황실의 외척 세력이 源氏가 된 것을 적은 것 같다. 曹命采(1700~1764)는 덴노를 두고 누구는 源氏라고 하고, 누구는 성씨가 없다는 말을 했다고 기록하였다(曹命采, 『奉使日本時見聞錄』 聞見摠錄, 「倭京」).

93) 許穆, 『記言』卷36 東事, 「黑齒列傳」

94) 趙綱, 『東槎錄』, 「題日本姓氏錄」.

95) 柳夢寅, 『於于集』後集 卷3 書, 「送回答副使朴典翰(梓)入日本序」

96) 李瀾, 『星湖僿說』卷23 經史門 6, 「秀吉犯上國」.

97) 柳夢寅, 『於于集』卷6 雜著, 「送回答使從事官李(景稷)入日本國辭」

98) 金世濂, 『槎上錄』, 「經家康戰場」.

99) 南龍翼, 『扶桑錄』 聞見別錄, 「關白次序」.

100) 安鼎福, 『東史綱目』13下 癸酉年(1333).

101) 李瀾, 『星湖全集』卷25 書, 「答安百順問目」.

氏에 대한 기록은, 앞서 다루었던 대로 이에야스에게 제거당했다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결국 平氏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히데요시라는 시역자이자 침략자로 집중된다. 여기서는 1719년(숙종 45) 호코지[方広寺] 접대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신사 일행이 교토[京都]에 도착하자, 쓰시마 번주는 통신사 일행을 호코지에서 맞이하여 연회를 베풀고자 연락하였다. 그런데 조선 사신들은 본국(조선)에서 이 절이 히데요시의 원당[秀吉之願堂]이라는 정보를 접했으며, 불구대천의 원수인 자의 원당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고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쓰시마 측은 호코지가 진실로 平氏를 위해 만든 원당이라면[若眞爲平氏, 而謂其人願堂也] 조선 사신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의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원당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당혹스러운 입장을 밝혔다.<sup>103)</sup>

호코지는 히데요시가 세운 미미즈카[耳塚]와 가까운 곳이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선 사신들은 이전까지 이 절에 방문하였다. 1719년 이전까지 8회 사행(회답검쇄환사 포함)이 있었는데, 병자통신사 때 우천으로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면 호코지 방문은 모두 성사되었다. 따라서 이재훈은 히데요시의 원당이라는 표현이 이 시기 처음 등장한 것이라고 밝혀, ‘히데요시의 원당’ 운운하는 대목이 의아하다는 입장을 취했다.<sup>104)</sup>

다만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조선이 ‘히데요시의 원당’ 운운했을 뿐임에도 쓰시마 측에서 곧바로 ‘平氏의 원당’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쓰시마는 호코지가 (히데요시가 아닌) ‘平氏의 원당’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애썼다. 京尹<sup>105)</sup>은 조선 사신들에게 집에 간직했던 『日本年代記』을 꺼내 전달하였다.<sup>106)</sup> 또한 쓰시마 번주는 부교[奉行]와 사이한[裁判] 등을 시켜 호코지가 세워진 시기는 이에미쓰가 관백이 된 해라고 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서, 쓰시마 번주는 源氏의 시대에 히데요시의 자손은 남은 부류가 없고, 平源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모두가 아는 바임을 강조하였다. 조선 측도 平氏의 원당이 아니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호코지가 히데요시의 원당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

정사(洪致中, 1667~1732)가 말하였다. “전에는 우리가 전해지는 말만 얻었는데, 이 절을 히데요시의 원당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을 만한 사서를 구하였는데, 이 절이 源氏를 위해 세운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지나는 길에 잠시 향응을 받아도 사리에 무방합니다. 또 이미 여러 왜인들에게 이 말을 듣게 하였으니, 우리가 결코 平賊의 절에 들어가지 않으려다 源氏인 것을 안 후에야 간다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잊지 않는 까닭입니다. 역시 일본에 충분히 선포하였습니다. (...)” 부사(黃璫, 1682~1728) 공이 말하였다. “제 견해 역시 이와 같습니다.” 종사(李明彦, 1674~?) 공은 홀로 불가하다고 하였다. 정사와 부사 양공이 내일 잠시 들른다는 뜻을 부교에게 전언하니, 부교와 여러 왜인이 명을 듣고 물러갔다.(밑줄: 발표자)<sup>107)</sup>

102) 北條가 平氏임을 언급한 관련 자료로 南龍翼의 『扶桑錄』 聞見別錄의 「人物」 중 古來武將十九人이 있다.

103) 申維翰, 『海遊錄』 己亥年(1719) 11月 1日.

104) 李在焄, 「申維翰의 ‘仙’: 『海遊錄』의 ‘仙’과 그 배경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51~52쪽.

105) 이덕무에 따르면 西京尹 혹은 京尹은 西關白이라 불린다고도 하는데(李德懋, 『靑莊館全書』卷65 蜻蛉國志2 「輿地」), 이 인물이 조선인들이 부르는 관백이 아닌 구계의 간파쿠일 가능성이 있다.

106) 이는 『해유록』의 기록으로, 『동사록』에는 이가노카미[伊賀守]가 소장한 『年代記』, 소케문조[宗家文書]에는 제목 없이 가키즈케[書付]의 내용만 실려 있다고 한다(이재훈, 주 104)의 논문, 54쪽).

107) 申維翰, 『海遊錄』 己亥年(1719) 11月 2日, “正使公以爲, 曩吾得於傳說, 而聞是寺爲秀吉之願堂. 故牢守不入之議, 今吾徵於信史, 而知是寺爲源氏之所建. 則歷受暫時之餉, 事理無妨. 且已使諸倭之聽聞

조선 측의 논리는 처음부터 호코지가 히데요시의 원당이라는 데 있었다. 그런데 정사 흥치중은 호코지가 결국 정통 권력자인 源氏의 원당임을 확인하였으므로, 더 이상 호코지에 가지 않겠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서장관 이명언은 이에 끝까지 반대하여 다음날인 11월 3일에도 병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정사 흥치중과 부사 황선은 호코지에서 연회를 받았다.<sup>108)</sup> 이로써 호코지를 둘러싼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럼 이에야스, 조선 측 기록에서는 대부분 ‘源家康’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혈통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 도쿠가와라는 묘지는 1569년 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에야스의 가문은 마쓰다이라[松平]를 칭했다. 이 가문은 무로마치 중엽 미카와[三河]에서 등장한 호족 세력이었으나, 그 태생이 불분명하였다. 이에 이에야스<sup>109)</sup>는 1564년 즈음부터 가계도를 조작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마쓰다이라 가는 조부 기요야스[清康]부터 겐지의 분파인 닛타[新田]의 후예인 세라다[世良田] 가문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야스는 1566년 이를 근거로 일본 조정에 미카와노카미[三河守]라는 관직과 도쿠가와[徳川]라는 묘지를 쓰도록 청원했다. 이는 1569년 받아들여져서, 이에야스는 미카와노카미를 받고 본인에 한하여 도쿠가와를 쓸 수 있게 되었다.<sup>110)</sup> 1603년 막부의 최고지위자인 세이이다이쇼군에 취임할 때 이에야스의 공식 명칭은 ‘從一位 우다이진[右大臣] 세이이다이쇼군[征夷大將軍] 겐지노 초자[源氏長者] 순와쇼가쿠[淳和奨学] 료인벳토[兩院別當]’였다.<sup>111)</sup>

이렇듯 이에야스는 본래 미나모토의 정통 후예라 부르는 것은 어려운 인물이었으나, 족보를 조작해서 조정에 미나모토 씨의 일파임을 공인해냈다. 이에 따르면 平氏를 멸문시킨 源家康이라는 조선 측의 이해는 일본의 실제 상황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平氏 자체는 임진왜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전히 귀족 명문가로 존재했으며, 멸문당한 건 오직 豊臣氏였다. 반면 도쿠가와 가문조차도 源氏임을 증명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조선은 이에야스의 정체성을 미나모토 씨, 구체적으로는 막부의 창립자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계승자라는 차원에서 찾으려 했다. 허목은 「黑齒列傳」에서 미나모토의 가계를 하나로 이어 서술하면서 이에야스의 가계를 추적하였다.

...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요리이에[頼家]와 사네토모[実朝]를 낳았다. 사네토모의 13세손에 호가 鹿松院(법명인 로쿠오쿠인[鹿苑院]의 오기: 발표자)인 도기[道義: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라

者, 悉諳吾輩決不入平賊之寺, 而知其源氏而後乃往, 則吾所以不忘讎之意. 亦足宣布於日本矣. (...) 副使公曰, 吾見亦如是矣. 從事公獨以爲不可. 正副兩公, 以明日暫歷之意, 傳言于奉行. 奉行諸倭, 聞命而去.”

108) 申維翰, 『海遊錄』 己亥年(1719) 11월 3일.

109) 아명은 다케치요[竹千代], 모토노부[元信]-모토야스[元康]을 거쳐 이마가와 가[今川家]로부터 독립한 1563년(1561년설, 1562년설 등이 있음)에 이에야스[家康]라 칭했다.

110) 구태훈, 『도쿠가와 이에야스: 절망을 딛고 대망을 이루다』, 휴먼메이커, 2023. 한편 히데요시 치하에서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에게 執奏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그럼에도 이에야스는 天正 16年(1588) 쥬라쿠테이[聚樂第] 행행까지만 해도 源氏를 썼다. 그가 히데요시로부터 받았을 도요토미와 하시바 중, 하시바 묘지를 썼다는 기록은 文錄 3年(1594) 9월에 처음 나타난다(黒田基樹, 『羽柴を名乗った人々』, 東京: 角川選書, 2016, 86~92頁). 또한 도요토미 씨는 宋應昌의 『經略復國要編』에 실린 나이토 조안[内藤如安]의 글에서 인용되어 있다(宋應昌, 『經略復國要編』後附, 「小西飛稟帖稟兵部尙書石」. 이에 대한 분석은 임현채, 「서평: 秀吉正權과 羽柴·豊臣[黒田基樹, 『羽柴を名乗った人々』, 東京: 角川選書, 2016]」, 『서강인문논총』60, 2021b, 220쪽을 참조). 최종적으로 세키가하라 전투가 끝난 후인 1600년부터, 이에야스와 그의 아들 히데타다는 하시바와 도요토미를 버리고 다시 도쿠가와와 미나모토로 돌아간 것 같다.

111) 구태훈, 주 110)의 책, 118쪽.

는 자가 있었다. 도기의 3세 후대에 요시나리[義成]가 있었고, 요시나리가 요시마사[義政]를 낳았다. (요시마사는) 대명국 成化 연간(1465~1487)에 국왕이라 칭했다. 이에야스[家康]는 요시마사의 11세 손이다.<sup>112)</sup>

허목이 작성한 위 기록은 김세렴의 『海槎錄』(병자통신사)과 조경의 『龍洲遺稿』 혹은 『東槎錄』의 「題日本姓氏錄」(계미통신사, 1643)에 나온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제일본성씨록」에서는 진잔이 사네토모의 11대손이며 그 아래로 즈이산[瑞山, 아시카가 요시아키라(足利善明)]를 지칭을 낳았고 또 그 아래로 요시미쓰[義滿]를 낳았다는 서술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은 「흑치열전」에서는 빠졌다. 김세렴의 『해사록』에서는 3대 쇼군인 이에미쓰가 이에야스의 손자이자 히데타다의 아들이며, 그들의 먼 조상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 밝혔다.<sup>113)</sup>

그런데 김세렴은 이에야스가 후지와라노 요시마사[藤原義政], 조경은 후지와라노 요시사다[藤原善定]의 11세손이라고 적고 있다. 김세렴은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며, 조경은 이 기록의 출처를 『丙子聞見錄』이라 밝혔다. 하지만 후지와라노 요시마사 혹은 요시사다를 선조로 두었다는 기록의 일관성은 조금 부족하다. 또한 요시사다 뒤에 나오는 인물은 요시나리[善成]이며, 일찍이 관백을 역임했고 자손이 대대로 關東에 살았다고 기록하였다. 따라서 이 기록은 허목이 오류라 판단하고 수정한 것 같다.

앞서 이덕무가 이에야스의 묘지를 언급한 대목에서도 이러한 면모를 볼 수 있다. 이에야스의 가계는 세이와 덴노[清和天皇]에게서 나왔다고 하였다. 이덕무는 세이와 덴노의 6세손인 미나모토노 요리요시[源頼義], 그 6세손인 미나모토노 요시사다[源義定]를 거쳐, 이에야스의 조부인 기요야스를 세이와 덴노의 21세손으로 기록하기도 했다.<sup>114)</sup> 원중거(元重舉, 1719~1790)도 요시사다의 9세손이 기요야스라 기록하였다.<sup>115)</sup> 반면 조선 내에서 이에야스가 源氏의 정통 세습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를 두고 자세히 조사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조선인들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이에야스가 정당한 권력자의 후예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인 源氏의 의미였다. 源氏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와 다이랴노 기요모리의 대립 때부터 형성되어 온 유서 깊은 관백(간파쿠)의 혈통이며, 조선에서는 이 혈통이 500년 동안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왔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히데요시의 氏 정권’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세습되지 못한 부도덕한 권력으로 그 한계를 결정지었다. 이덕무나 원중거 등 ‘북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들일지라도,<sup>116)</sup> 기본 골자는 조선 조정이 지녔던 ‘상식적인 정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조선이 에도 막부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인상을 갖게 한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 IV. 맺음말

조선인들이 전근대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초창기부터

112) 許穆, 『記言』卷36 東事外記5, 「黑齒列傳」, “賴朝生賴家·實朝. 實朝十三世. 有道義, 號鹿松院者也. 道義三世, 有義成. 義成生義政. 大明成化間, 稱國王者也. 家康者, 義政十一世孫也.”

113) 金世濂, 『海槎錄』, 「聞見雜錄」.

114) 李德懋, 『靑城雜記』卷1, 「人物」.

115) 元重舉, 『和國志』卷1 「武州本末」.

116) 하우봉, 『원중거, 조선의 일본학을 열다』, 경인문화사, 2020, 20~22쪽.

축적되어 왔다. 또한 에도 막부나 쓰시마에서 조선과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연구도 매우 활발하다. 하지만 조선 조정이 동시기의 에도 막부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본고는 조선 후기 조선 조정에서 에도 막부라는 정치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조선 조정은 이에야스와 에도 막부를 히데요시와 차별화되는 정권으로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여기서 조선 조정이 주목한 점은 이에야스의 정권이 弑逆者 히데요시의 平氏와 대비되는 源氏였다. 조선에서 源氏 정권은 일시적인 무력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가 아니라, 대대로 세습되어 내려오는 안정적인 왕조국가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지식인들도 이 영향을 받아, 일본의 源氏가 정통 권력이라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단순히 조정이 에도 막부를 인식하는 프레임을 벗어나, 지식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에도 막부를 안정적인 상대로 인식하기 위해, 그 이전에 존재했던 가마쿠라-무로마치의 源氏와 궤를 같이하는 유사 단일왕조에 가까운 정통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정통성 논법은 본질적으로 일본을 중화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며, 源氏가 아무리 장구한 세습정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華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조선 조정이 일본을 이적이라는 까닭으로 낮추어 보는 태도만 지니지는 않았음을 증명한다. 위와 같은 정보는 조선이 스스로 에도 막부와 통교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본고에서는 조선이 얻은 정보가 막부 혹은 쓰시마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조선 조정이 일본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는지, 혹은 알고자 하였는지는, 조선의 인식 체계에서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그 누구라도 상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상대의 표면상 태도에 맞추어 타협점을 찾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조선 조정이 알고 있는 정보에 비추어 보아 현재 일본의 정권과 소통하기에 문제가 없다면, 조선이 스스로 그 가치를 내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조선 조정이 지닌 가치관은 조선 내에서 임진왜란의 상흔이 끈질기게 남아있음을 보여 준다. 에도 막부가 일전에 존재했던 가마쿠라-무로마치 막부와 같은 계보상의 정통 권력이 되도록 만드는 작업은, 히데요시 집권기를 '비정상'의 범주에 넣어야만 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선은 임진왜란을 어디까지나 '왜놈들의 수장이 한때 미쳐서 일으킨 비정상적인 亂' 곧 '壬辰倭亂'으로 끌어내릴 수 있었다.<sup>117)</sup> 그에 반비례하여 조선은 이에야스와 에도 막부를 매개로 히데요시가 아닌 '정상적이어야 할 일본'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확대 재생산하였다. 위와 같은 접근법은 조선이 이해할 수 있는 지극히 조선다운 사고방식의 결정체였다. 그러므로 이 조건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일본 내부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조-일관계의 '선린'이 큰 틀에서는 위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

117) 물론 戰爭(War)이라는 표현 자체는 '싸움' 전반을 포괄하며 조선에서도 이러한 용례는 상당히 많이 보인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주로 싸움 그 자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더라도 대등한 세력 간의 싸움을 전쟁이라 칭하였으며, 국가 간 위계질서가 엄연히 존재하는 국제 관계 하에서 일어난 싸움을 전쟁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한, 싸움이란 대개 기록 측이 주도한 전쟁이 征·伐이고 기록 측이 당하는 전쟁은 侵·掠·亂·變 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조선이 이 전쟁을 가리켜 기존의 倭亂·倭變 용어를 사용하였으면서도, 전쟁을 겪은 선조대(1592년~1608년)에도 倭變(28회)이 倭亂(7회)보다 많았음에도 후대에 점차 倭亂의 비중이 올라갔다는 사실이다.

## 참고문헌

### 사료

-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癸未東槎日記』 『邊例集要』  
姜沆, 『看羊錄』  
姜弘重, 『東槎錄』  
慶 暹, 『海槎錄』  
金世濂, 『槎上錄』  
金世濂, 『海槎錄』  
南龍翼, 『扶桑錄』  
朴趾源, 『燕巖集』  
申 炅, 『再造藩邦志』  
安鼎福, 『東史綱目』  
柳夢寅, 『於于集』  
李崇仁, 『陶隱集』  
李肯翊, 『燃藜室記述』  
李德懋, 『青城雜記』  
李德懋, 『靑莊館全書』  
李 瀼, 『星湖僊說』  
李 瀼, 『星湖全集』  
任 紘, 『丙子日本日記』  
張 維, 『谿谷集』  
趙 綱, 『東槎錄』  
趙慶男, 『亂中雜錄』  
趙慶男, 『續雜錄』  
曹命采, 『奉使日本時見聞錄』  
趙 曦, 『海槎日記』  
車天輅, 『五山集』  
許 穆, 『記言』  
黃 辰, 『東槎錄』  
洪禹載, 『東槎錄』

### 연구논문 및 저서(한국)

- 계승범, 『정지된 시간: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구태훈, 『도쿠가와 이에야스: 절망을 딛고 대망을 이루다』, 휴먼메이커, 2023.  
김경태, 「임진왜란 직후, 대일강화정책의 성격연구」, 『한국사연구』138, 2007.  
김태훈, 「에도시대 초기 조선의 임진왜란 인식: 林羅山の 『豊臣秀吉譜』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34, 2016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2009.  
민덕기,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관계』, 경인문화사, 2007.  
\_\_\_\_\_, 「임진왜란기 대마도의 조선 교섭」, 『동북아역사재단』41, 2013.

- 박상휘, 「조선후기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대한 지식의 축적」, 『국문학연구』30, 2014.
-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교린관계의 허와 실」, 개정판; 경인문화사, 2006.
- 이 훈, 『조선의 통신사의교와 동아시아』, 경인문화사, 2019.
- 임현채, 「壬辰倭亂期 조선과 일본의 豊臣氏 활용과 그 인식」, 『한일관계사연구』71, 2021a.
- \_\_\_\_\_, 「서평: 秀吉正權과 羽柴·豊臣[黒田基樹, 『羽柴を名乗った人々』, 東京: 角川選書, 2016]」, 『서강인문논총』60, 2021b.
- \_\_\_\_\_, 「조선 전기 조선 조정의 일본 지배층 인식: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人名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82, 2023.
- 정은영, 「안덕천황(安徳天皇) 기사 탐색에 드러난 조선후기 통신사의 일본 정치체제 인식」, 『인문학연구』32, 2019.
- 조인희, 「정유재란사(丁酉再亂史) 연구에 관한 한일학계 연구의 현황」, 『學林』46, 2020.
-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혜안, 2006.
- \_\_\_\_\_, 『원중거, 조선의 일본학을 열다』, 경인문화사, 2020.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명기, 「조선시대 한중일 관계와 상호인식 추이」, 『한국학연구』57, 2020.
- 한태문, 「조선후기 通信使와 四溟堂」, 『어문연구』64, 2010.
-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2009.
- \_\_\_\_\_, 『실학이라는 생각』, 신서원, 2025.
- 황정아, 「한국의 근대성 연구와 “근대주의”」, 『사회와 철학』31, 2016.

#### 연구논문 및 저서(일본)

- 池内敏, 『日本人の朝鮮觀はいかにして形成されたか』, 東京: 講談社, 2017.
- 黒田基樹, 『羽柴を名乗った人々』, 東京: 角川選書, 2016.
- 関周一 編, 『日朝關係史』, 東京: 吉川弘文館, 2017.(허지은 · 이기원 역, 『한일관계사』, 경인문화사, 2024).
- 程永超, 『華夷変態の東アジア: 近世日本・朝鮮・中国三国關係史の研究』, 大阪: 清文堂, 2021.



[토론문]

## <조선 조정의 에도 막부 인식 : 조선에서 본 이에야스와 源氏>에 대한 토론문

유채연(전북대)

○ 본 발표문은 조선 후기 조선 조정이 에도 막부와 이에야스를 인식하고 평가했던 구체적인 논리와 기준을 다양한 사료(관찬사서, 문집, 사행록 등)를 통해 추적하고 재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연구가 주로 일본의 외교 체제 변화, 조일 간의 국제 질서, 조선이 일본을 바라보는 화이관 등 거시적 틀에 집중하거나, 에도 막부나 쓰시마에서 조선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시기 조선이 에도 막부(이에야스)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외교정책 및 전략을 구상한다고 할 때, 상대국에 대한 정보 탐색을 바탕으로 한 인식 내지는 판단 등은 매우 중요하다. 즉 조선이 외교의 상대로서 에도 막부(이에야스)를 어떤 존재로 인식, 상정하였는지는 대일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전제였으며, 이는 통신사 파견을 비롯한 모든 대일 외교 전략과 대응을 구상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연구 성과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조선이 에도 막부를 어떠한 논리와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했는지를 차분하게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대위기를 겪은 직후임에도 조선이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게 된 외교적 결단의 기초와 배경을 해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 발표문의 주제가 ‘조선 조정의 에도 막부 인식’ 이라고 하였는데, ‘에도 막부’가 있어 조선 후기임을 알 수 있지만, 조선 후기 또는 17~18세기 등으로 범위(시기)를 특정하여 주면 어떨까요. 발표문에서 국교 재개기부터 17, 18세기 통신사행록, 그리고 18세기 지식인의 문집 등을 폭넓게 활용하여 에도 막부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연구의 범위를 구체화한다면 발표자의 논지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5페이지에서

1604년 탐적사를 보낸 후에도 “조선은 여전히 이에야스가 강화를 청한 주체임을 믿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가 바뀌는 것은 영의정 유영경이 이에야스의 말을 일단 신뢰하기로 해 본 뒤였다. (중략) 그 결과 비변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별단으로 공식화하였다. (인용문 생략) 해당 자료는 1606년 일본과 화호를 다시 맺는 문제를 두고 쓰시마

측 사신인 다치바나 도시마사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도시마사는 쓰시마 번주 소 요시토시의 휘하로 요시토시의 답서를 가지고 조선에 왔는데, 조선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쓰시마가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그 가운데 이에야스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쌓였고, 조선은 비로소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에야스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조선이 공식적으로 이에야스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계기는 유영경의 발언이라기보다는 그 발언의 근본적인 배경인 그동안 조선에 축적된 일본(이에야스)에 대한 정보였다고 할 수 있다. 유영경이 북인정권의 핵심인사로서 외교정책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각주 30), 유영경의 ‘일단 신뢰’라는 판단은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며, 그 정보 축적의 결과물이 비변사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보 축적이 태도 변화의 실질적인 원인이었다.

- 3) 임진왜란을 일으킨 핵심 주범으로서 豊臣秀吉(平秀吉)에 대해 조선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반면 조선은 히데요시의 무리를 멸망시킨 이에야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조선은 이에야스와 에도 막부를 차별화하기 위하여 가마쿠라 시대 源氏와 平氏の 정치 구도에서 源氏를 정통 권력으로 의미 부여함으로써 源氏를 쓰고 있는 이에야스가 정당한 권력자의 후예로 인식하였다. 심지어 에도 막부를 가마쿠라-무로마치의 源氏와 平氏를 같이하는 유사 단일왕조에 가까운 정통성까지 부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이 사실 관계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조선이 위와 같은 인식(개인적으로 의도적, 선택적인 역사 해석으로 판단된다)을 구축한 의도를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 ○기타

- 1)생몰년을 표기하는 것은 별도의 의도가 있는지 궁금하다.
- 2)6페이지. ‘일단’ 신뢰 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1607년 제1차 회답검쇄환사를 파견할 때에는 일단 신뢰하였다는 것이면, 같은 페이지에서 “회답검쇄환사가 무사히 임무를 마친 이후 에도 막부에 대한 평가가 긍정 일변도로 바뀌기 시작하였다”는 내용과 문맥상 부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 3)9페이지. “조선에 건너온 막부 측 인사들도” 내용에서 조선 후기 막부에서 조선에 직접 사절을 파견하였다는 의미인가.
- 4)18페이지. “조선은 이에야스와 에도 막부를 히데요시와 차별화되는 정권으로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조선에서 源氏 정권은 일시적인 무력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가 아니라, 대대로 세습되어 내려오는 안정적인 왕조국가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중략) 이에야스와 에도 막부를 매개로 히데요시가 아닌 ‘정상적이어야 할 일본’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확대 재생산하였다. 그러므로 이 조건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일본 내부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조-일관계의 ‘선린’이 큰 틀에서는 위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내용에서 신중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제2발표>

1629년 일본사절 상경과정에서의  
접대에 대하여

발표 : 심민정(부경대학교) / 토론 : 허지은(서강대학교)

## <제2발표>

# 1629년 일본사절 상경과정에서의 접대에 대하여

심민정(국립부경대 해양인문학연구소)

1. 머리말
2. 동래에서의 체류와 접대
3. 일본사절의 상경로와 접대
4. 맺음말

## 1. 머리말

임진전쟁 종결 후 국교회복 과정에서 대일외교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마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선과의 국교회복을 시도하였다. 1599년 초에는 對馬島主 平義智가 梯七太夫를, 柳川調信은 源智實을 파견하였으나 明의 萬世德의 반대로 강화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sup>1)</sup> 1600년 명의 인질이 귀환한 후에야 조선은 독자적으로 대마도를 필두로 국교회복을 위한 일본사신의 서계를 접수하기 시작했는데, 1601년 6월 來渡한 頭倭 橋智正이 피로인 250명을 송환한 것<sup>2)</sup>이 시작이었다.<sup>3)</sup> 이후 1607년에는 정사 呂祐吉, 부사 慶暹, 서장관 丁好寬이 回答兼刷還使로 파견되어 양국 간 國書의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공식적으로 국교가 재개되었다.

국교재개 이후 조일 양국의 외교업무는 사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조선에서는 국왕사인 通信使와 역관사행인 問慰行이 파견되었고, 일본에서는 대마도주의 歲遣船, 受職人船 등의 年例送使를 비롯하여 비정기적 사절인 差倭가 왕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사신의 도해로 인해 추가적인 사신 왕래 및 접대 규정이 필요했다. 이런 규정들을 약정한 것이 己酉約條(1609)였으며, 조선 후기 일본사신과 관련한 외교 규약으로서 기본 틀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일본사신의 왕래와 접대 등에 대해서는 1637년 兼帶制의 시행과 別差倭의 파견 등으로 인해 관련 규정이 완비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기유약조의 약정과 겸대제 시행까지는 사실상 과도기인 셈이다. 이는 겸대제 이후 접대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受職人이 접대를 받고 있고, 차후 대차왜(참판사)로 명칭이 변화하기 전 日本國王使라는 명칭으로 사절이 파견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도기에는 규례와 다른 접대례가 행해진 일본사절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절이 1629년 정사 玄方, 부사 杉村采女(平智広) 일행이었다. 이들은 임진전쟁 이후로는 처음이자

1) 『朝鮮通交大記』 권4, 萬松院公次; 『변례집요』 권2, 「送使」 己亥(1599) 1월.

2) 『변례집요』 권2, 「送使」 己亥(1599).

3) 임진전쟁 이후 조일간의 강화교섭에 대해서는 '홍성덕, 「壬辰倭亂 직후 日本의 對 朝鮮 講和交涉」, 『한일관계사연구』 3, 1995'가 참조된다.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上京한 사절이었다. 이 사절에 대해서는 막부장군의 지시를 받아 도해했으므로 국왕사절로 보아야할지, 실제 국서를 지참하지 않은데다가 국왕사를 접대하는 조선측 관원인 宣慰使가 接慰官으로 교체된 점에서 巨僮使 혹은 特送使로 보아야할지 여전히 명확한 해석이 따르지 않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田代和生이 주도적으로 1629년 사행에 대해 연구를 진행<sup>4)</sup>한 이래 최근에는 『御上京之時每日記』<sup>5)</sup>, 『方長老上京日史』(玄方, 1629)<sup>6)</sup>, 『음빙행기(飲氷行記)』<sup>7)</sup>를 편역하면서 본 사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사절의 구성 및 상경 경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일은 본 탈초 번역본을 서평의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629년 사절에 대해 ‘사절의 上京’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주목하여 상경의 배경, 일본사절 측의 요구 등을 밝힌 정성일<sup>8)</sup>과 김태훈<sup>9)</sup>의 연구가 있다. 또한 홍성덕은 1629년 일본사절은 국왕사의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국왕사가 차왜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는 사절로 평가하였다.<sup>10)</sup> 하지만 국왕사가 아닌 거추사나 특송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상의 국내 연구들은 사료들을 소개하거나 언급하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절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규명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御上京之時每日記』, 『方長老上京日史』(玄方, 1629), 『음빙행기(飲氷行記)』 등의 내용을 확인하되 사신접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본 사절의 명칭 및 성격에 대해 재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2. 동래에서의 체류와 접대

### 1) 1629년 일본의 사절의 상경 허가

1627년 1월에 정묘호란이 발생하자 조선은 이 사실을 일본에 알림과 동시에 전란에 대비할 인력과 물자의 보급을 위해 送使의 파견 정지를 요청하는 서계를 대마도에 보내었다.<sup>11)</sup> 그해 3월에 전란이 종결되고 강화가 이루어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 비변사와 조정의 신료들은 연이어 국왕에게 送使船의 파견을 재개할 것을 건의하였다. 아마도 전란이 빨리 종식된 상황을 알려 일본 측에서 혼란한 틈을 타 다른 마음을 먹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려 한 것이

4) 田代和生, 「寛永六年(仁祖七, 1629), 對馬使節の朝鮮國『御上京之時每日記』とその背景(一・二・三)」, 『朝鮮學報』96·98·101, 1980·1981·1982.

5) 田代和生 編著, 『御上京之時每日記』(近世日朝交流史料叢書 III), ゆまに書房, 2023. 이 자료는 스키 무라 우네메[杉村采女] 가문에서 전해져오고 있었는데, 후손이 그것을 나가사키현립[長崎県立] 쓰시마 역사민속자료관[對馬歴史民俗資料館]에 기증하였다고 한다(현재는 長崎県對馬歴史研究センター). 본서에 대해서는 ‘정성일, 『서평: 『어상경지시매일기(御上京之時每日記)』(田代和生 編著, 近世日朝交流史料叢書 III, 일본 ゆまに書房, 2023, 485쪽)」, 『한일관계사연구』83, 2024’를 참조할 만하다.

6) 田代和生 編著, 『方長老上京日史·飲氷行記』(近世日朝交流史料叢書 II), ゆまに書房, 2021.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정성일, 『서평 : 방장로상경일사(方長老上京日史) 음빙행기(飲氷行記)』(田代和生 編著, 2021, ゆまに書房)」, 『한일관계사연구』75, 2022’를 참조할 만하다.

7) 정흥명, 『음빙행기』

8) 정성일, 「丁卯胡亂과 朝鮮의 貿易政策 - 1629년 日本 ‘國王使’의 上京과 관련하여」, 『史學研究』49, 1995.

9) 김태훈, 「인조대 전반기 국제정세 변화와 대일정책」, 『한일관계사연구』55, 2016.

10) 홍성덕, 「朝鮮後期 日本國王使 檢討」, 『한일관계사연구』6, 1996.

11) 국사편찬위원회, 「對馬島宗家關係文書書契目録集」1, 1991. 書契 No.196; 『朝鮮通交大紀』권6, 光雲院公, 東萊府使柳太華書.

라 생각된다. 비변사에서 ‘서쪽의 적을 평정하였으니 너희는 출래해서 (조선에서 지급할 물건을) 받아가라’<sup>12)</sup>고 한 것이나, ‘경상도는 다른 곳에 비해 온전하여 왜인에게 줄 요와 포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물건들을 조정에서도 마련하여 말썽이 생길 우려가 없도록 해야한다.’<sup>13)</sup>는 신료들의 건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조선 측의 서계를 접한 대마도 또한 대응에 나섰다. 대마도주는 差倭 平智次를 파견하여 조선의 사정을 확인하는 동시에 軍器를 바쳤다.<sup>14)</sup> 조선에서는 이들에 대한 접대를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양찬을 지급하고<sup>15)</sup> 회답하는 글을 보내도록 했다. 대마도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막부에도 보고하였다. 막부는 대마도주 宗義成이 대마도로 환도하게 되자 조선의 정세 파악을 위한 사절 파견을 지시하고 援兵에 대한 언급도 하였다.<sup>16)</sup> 지시를 받은 대마도주는 上京을 목표로 한 사절 파견을 준비하였다.

1629년 3월 17일, 規伯玄方을 正官으로, 도주의 家臣 杉村采女를 副官으로 한 사절단 일행이 부산포에 도착하였다.<sup>17)</sup> 동래부에서는 막부의 명에 의해 도해했으므로 상경을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玄方 일행<sup>18)</sup>을 어떤 유형의 사절단으로 파악하고 접대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당시 동래부사 유여각은 ‘玄方 일행이 속히 상경하여 예조에 직접 여쭙 일이 있다고 청하는데 가지고 온 문서를 감추고 보여주지 않아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계를 올렸다.<sup>19)</sup> 상경 문제는 차치하고 조정에서는 우선 사절단을 접대할 관원을 接慰官으로 할 것인지, 宣慰使로 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비변사에서는 문서가 명확하지 않으니 접위관으로 홍문관 교리 조경을 차정할 것을 아뢰었다. 하지만 예조에서는 임술년(1622)에도 玄方이 국왕사 자격으로 내도하였으며, 이때 조정에서 선위사를 보내 접대했으니 이번에도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여 접위관을 선위사로 교체하였다. 차정된 조경 또한 상소를 하여 자신의 식견이 짧아 선위사로서의 명을 받드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으므로 25일 정홍명이 선위사로 임명되었다. 역관은 가선동지 이언서, 사역원정 박언황이었고, 윤대선, 강위빈 등도 함께 임명되어 동래로 향하였다.<sup>20)</sup>

玄方 일행이 막부의 國書를 지참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국왕사 접대 관원인 선위사를 차정한 이유는, 첫째 사절이 막부장군의 명을 받아 내도했다고 한 점 때문이다. 물론 국서를 동래부사에게 확인시켜주지는 않았지만, 이미 통신사를 요청하기 위해 1606, 1616년 도래한 사절, 통신사 파견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1608, 1622년 사절, 기유약조 약정을 위한 1609년사절 등이 국서를 지참하고 파견되었으므로 1629년에도 막부장군의 명을 담은 국서의 존재를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1622년 국왕사로 도해했던 玄方<sup>21)</sup>이 다시 正官이 되어 왔으므로 국왕사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지

12) 『인조실록』권15, 1627년(인조5) 3월 10일 정축.

13) 『인조실록』권15, 1627년(인조5) 3월 12일 기묘.

14) 『인조실록』권15, 1627년(인조5) 3월 25일 임진.

15) 『접왜식례』 「差倭」, 1627년 3월.

16) 田代和生, 「寛永六年(仁祖七, 1629), 對馬使節の朝鮮國『御上京之時毎日記』とその背景(一)」, 『朝鮮學報』96, 1980, 91쪽; 田代和生 編著, 『方長老上京日史·飲氷行記(近世日朝交流史料叢書 II)』, ゆまに書房, 2021, 13~14쪽.

17) 田代和生 編著, 앞의 책, 2021, 17~18쪽.(윤2월(조선력 3월) 17일); 정홍명, 『음빙행기』 승정 2년(1629) 기사 3월 23일.

18) 田代和生 編著, 앞의 책, 2023, 485~486쪽.

19) 『인조실록』권20, 1629년(인조7) 3월 24일 경진; 정홍명, 『음빙행기』 승정 2년(1629) 기사 3월 23일.

20) 『인조실록』권20, 1629년(인조7) 3월 24일 경진; 정홍명, 『음빙행기』 승정 2년(1629) 기사 3월 23일, 24일, 25일.

21) 1622년 1월에 玄方이 부산에 건너옴. (『광해군일기』권5, 13년 2월 己未.)

않았던 이유도 있었다. 특히 비변사에서 처음에 접위관을 임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1622년 玄方이 도해했던 예와 동일하게 접대해야 하므로 선위사를 차정해야 한다고 예조에서 제시한 의견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일단 선위사로 정홍명이 임명되기는 했으나 국서의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접대 기준이 정해지는 데다가 이들사절이 上京 요청도 하였으므로 조정에서는 동래로 향하고 있는 정홍명에게 수시로 貼紙를 보내어 유지를 전했다. 처음 정홍명에게 주어진 임무는 첫째, 玄方이 지참한 것이 국서인지의 여부 파악, 두 번째로 상경의 길을 절대로 열어주지 말라는 것이었다.<sup>22)</sup> 하지만 선위사가 동래에 도착하기도 전에 玄方 일행은 상경허가를 조속히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며 돌아가려는 기색이었다.<sup>23)</sup> 이 때문에 정홍명은 더 급히 서둘러야 했다. 상주에서 월과정으로 지나가는 길에 서두르라는 유지를 받은 후 정홍명은 3일 만에 동래에 도착<sup>24)</sup>했다. 동래에 도착하자마자 역관들을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玄方일행이 매일 상경을 청하고 있으며, 허락을 받지 못하면 바로 철수하겠다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정홍명은 함께 온 역관에게 玄方일행의 상황을 살피고 선위사의 도착 사실을 알리도록 했는데, 역관이 도중에 일본사절들의 겁박에 못이겨 선위사가 상경의 청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실언을 하는<sup>25)</sup> 바람에 일본사절은 더 거세게 상경 허락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정홍명은 부산에 도착한 후 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玄方일행의 집요한 상경요구와 철수 겁박이 반복되자 별도로 일본사절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상경의 빌미가 되는 역관의 발언이 있던 이후 며칠 동안 선위사의 확답이 없자 급기야 玄方 일행은 짐을 싸서 배에 싣고 출발하겠다고 소동을 벌였다. 급박해진 정홍명은 便服 차림으로 직접 玄方 일행을 방문했다. 정홍명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玄方과 상응하고 교의까지 마련하여 앉았으나, 玄方은 바닥에 앉아 서둘러 이야기하기를 청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平智廣로 함세하여 대마도주의 형편이 좋지 않다는 말로 상경을 허락해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다.<sup>26)</sup> 전후 사정이 장계로 작성되었고, 조정에서도 상경허가와 불허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비변사도 처음에는 국서가 없으니 불허해야 한다고 하였지만,<sup>27)</sup> 사신들이 정말 돌아갈 수도 있으니 상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sup>28)</sup> 인조는 정홍명의 강력하게 못한 처사를 탓하며 상경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sup>29)</sup> 하지만 이귀가 후회없도록 왜사의 상경을 허락하자고 강력히 주장했고,<sup>30)</sup> 선위사와 경상좌수사가 일본사신이 승선하여 대기중이라는 보고가 잇따르자<sup>31)</sup> 결국 인조는 상경 허락 결정을 하였다.<sup>32)</sup>

한성과 부산에서 계문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비변사에서 상경 허락이 결정되었다는 문서가 도착하였다.<sup>33)</sup> 4월 18일에 문서를 접한 정홍명은 4월 21일에 역관을 통해 일본사절에게 상경이 허락된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일본사절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있는 눈치였다고 한

22) 정홍명, 『飲水行記』, 4월 1일. 첩지는 3월 29일에 성첩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23) 정홍명, 『飲水行記』, 4월 3일.

24) 정홍명, 『飲水行記』, 4월 6일.

25) 정홍명, 『飲水行記』, 4월 7일.

26) 정홍명, 『飲水行記』, 4월 12일.

27) 『인조실록』권20, 1629년(인조7) 4월 13일 무술.

28) 『인조실록』권20, 1629년(인조7) 4월 15일 경자.

29) 『인조실록』권20, 1629년(인조7) 4월 13일 무술.

30) 『인조실록』권20, 1629년(인조7) 4월 14일 기해.

31) 『승정원일기』, 1629(인조7) 4월 15일 경자.

32) 『인조실록』권20, 1629년(인조7) 4월 15일 경자.

33) 정홍명, 『飲水行記』, 4월 18일.

다.<sup>34)</sup> 실제로 『方長老上京日史』에는 4월 20일에 이 사실을 들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35)</sup> 임진전쟁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본사절의 한성 상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 2) 동래부의 접대

일본사신의 상경이 결정되자 상경 인원수부터 상경사절의 접대 기준 등이 논의되었다. 결과 결정된 4월 17일 성첩에는 상경인원과 접대를 ‘巨僮使의 예’로 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20일 전에 보냈던 부산의 군관 안상이 돌아와 17일에 성첩한 유지를 공경히 받았는데 내용인 즉, “객사가 상경을 할 형편이니 **접대의 절목과 반종의 다소는 한결 거추의 사가 온 예로 대우하되** 모든 일을 될 수 있는 한 줄이도록 하라.” 했다. 즉시 장계를 봉하여 보내고 비국 공사에도 또한 회보를 했다. 그리고 도내에도 이문을 내어 일로(一路)에서 접대할 모든 일을 살피고 단속하라고 했다.<sup>36)</sup>

조선의 입장에서는 거추사의 예로 접대하는 것이 기준이었지만, 玄方 일행은 관백의 명을 받고 온 사절이라고 주장한 만큼 국왕사의 예로 접대를 받고자 했다. 한편으로는 玄方 일행의 상경사절에 ‘국왕사’라는 명칭을 붙인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고, ‘조선전기 국왕사 - 조선후기 국왕사 - 참판사(대차왜) - 대차왜’, ‘조선전기 거추사 - 조선후기 특송사, 혹은 별차왜 - 소차왜’로의 연결성을 확인한 연구<sup>37)</sup>가 있기 때문에 이상의 사절별 접대규정을 <표 1>을 통해 우선 제시한다. 실제로 1629년 玄方 일행이 상경하기 전까지는 『해동제국기』에 규정된 연향의 설행과 접대가 점차 개정되어 『접왜식례』(1659) 단계의 규정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다만 국왕사와 거추사의 변화로 인해 국왕사격 접대는 대차왜에 대한 접대로, 거추사격 접대는 소차왜나 특송사의 접대와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 조선시대 국왕사·거추사·특송사 접대 규정

출전	사신	인원	연향·접대
해동제국기	국왕사	25(상경)	·삼포연(체류)3 -선위사2, 차사원1 ·삼포연(환포)1 -차사원1 ·노연(경상도 왕복)6 -관찰사2, 수령4 ·노연(충청·경기 왕복) 각2회 총4회 -관찰사 ·경중영연1, 전연1 ·궐내연2 -진상1, 하직1 ·예조연1, 명일연 ·3품 朝官이 京通事를 인솔하여 왕복 호송
	거추사	15(상경)	·삼포연(체류)2, 삼포연(환포)1 -차사원 ·노연(경상도 왕복)4 -관찰사2, 수령2 ·노연(충청·경기 왕복) 각2회 총4회 -관찰사 ·경중영연1, 전연1

34) 정홍명, 『飲氷行記』, 4월 21일.

35) 『方長老上京日史』, 1629년 3월 20일.(일본 월력으로는 3월 20일, 조선 월력으로는 4월 20일에 해당한다.)

36) 정홍명, 『飲氷行記』, 4월 19일.

37) 홍성덕, 앞의 논문, 1996.

			·궐내연2 -진상1, 하직1 ·예조연1, 명일연 ·경통사가 삼포에서 영접, 환포시 조관이 경통사 인솔하여 호송.
기유약조	국왕사		·上船 副船 접대 ·過海糧 20일분 지급
	특송사		·세견선 20척 중 3척 포함 ·과해량 10일분 지급
접왜식례 (1659) 통문관지	차 왜	대차왜 (참판사) (통)	21인(정관1, 도선주1, 봉진압물1, 시봉2, 반종 16) ·하선다례1, 하선연1, 별연1, 노차연1, 명일연1, 진상간품다례1, 예단입급다례1, 상선연1, 별하정2, 예하정2 ·1특송례로 접대 ·경접위관 접대
		소차왜 (통)	·(표)5인(정관1, 압물1, 반종3) ·(도주)10(정관1, 압물1, 시봉1, 반종7) ·하선다례1, 하선연1, 진상간품다례1, 예단입급다례1, 상선연1 ·세견1선례로 접대 ·향접위관 접대
	1특송사(접)	13인(정관1, 도선주1, 2선주1, 봉진압물1, 사복압물1, 봉진1, 반종7) ·하선다례1, 하선연1, 별연1, 노차연1, 명일연4, 銅鐵간품다례1, 예단다례1, 상선연1, 별하정2, 예하정2 ·숙공 5일	
	부특송사(접)	16(정관1, 부관1, 도선주1, 2선주1, 留船主1, 봉진압물1, 사복압물1, 시봉2, 반종7) ·1특송사와 동일 ·숙공 6일	

위의 표에 의하면, 조선 전기에 상경하는 일본사절에게 포소왜관에서는 삼포연(三浦宴), 상경하는 중간에는 노연(路宴)이 설행되었다. 또한 일본사신이 한양에 들어가면 영연(迎宴)이 행해졌다. 영연이란 일본사신이 한양의 경역 내에 들어가면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베푸는 연향이다. 사신이 한양에서 출발하여 되돌아갈 때에도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를 전연(餞宴)이라 한다. 경연과 전연을 합하여 경중영전연(京中迎餞宴)<sup>38)</sup>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임진전쟁 이후로 1629년 일본사절 전까지는 실제 상경한 사례가 없고, 1609년 일본사신 접대를 규정한 기유약조가 약정된 이후에도 상경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경으로 인한 접대례는 폐지나 변용의 수순을 밟고 있었다. 이는 1610년 오윤겸이 치계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10년 당시 동래부사였던 오윤겸은 1609년 기유약조 약정 후 상경하는 일본사절이 없어지는 상황이므로 부산에서 일본사절 접대를 전담하게 되면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비변사는 답을 보내어, ‘모든 大小客使가 포구에 머무르는 기한은 하나같이 전례대로 하고 노정·진상·하직 등 肅拜와 연향은 비록 능히 일일이 다 행하지는 못하지만 진상과 하직의 연향은 변함없이 행해야 하며 노정의 연향을 대신하는 것은 형세를 보고 참작하여 별도의 잔치[別宴]를 베풀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sup>39)</sup> 일본사신의 상경금지 조치로 인해 임진전쟁 전에 치러졌던 접대례 등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

38) 신숙주, 『해동제국기』, 조빙응접기, 경중영전연(京中迎餞宴)

39) 『광해군일기』 2년(1610) 3월 18일 갑오. (凡大小客使留浦日限, 一依前例, 路次·進上·下直等肅拜·宴享則雖不能一一盡行, 進上·下直宴享則不動爲之, 路次宴享代, 則觀勢參酌, 亦設別宴.)

었던 것이다. 이는 아래의 <표 2>에서처럼 국왕사에 대한 연향 및 접대례가 점차 동래부의 몫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었던 것에서 확인된다.

그렇다면 <표 1>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산에서 실제 일본사신에게 행해졌던 접대례는 어떻게 변용되고 있었을까? 모든 유형의 접대 사례를 다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상경하지는 않았으나 1629년 玄方 일행과 비견해볼 수 있는 국왕사절의 접대 사례를 다음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4 . 임진전쟁 이후 부산에서의 국왕사 접대

시기	파견목적	구성	연향 및 접대례
1606.11 <sup>40)</sup>	·강화 조건 이행 ·통신사 요청	·橘智正	·국서 지참. ·부산해변에서 경상감사·경상좌병사·경상좌수사에게 서계식. ·정관과 <b>접위관</b> (김지남)이 <b>대마도 특송례로 연향 접대</b> ·절영도왜관에 유박
1608.11	·회답검쇄환사 파견에 대한 報聘使 ·선조 승하에 대한 進香使	·불명	·국서 지참 ·부산객사 전폐 앞에서 행례하고 국서를 정납함.
1609.03	·기유약조 약정 ·上京, 朝貢路 요청(불허)	·정사 玄蘇, 부사 平景直, 도선주 이하 33 ·橘智正, 격왜320 <sup>41)</sup>	·국서 지참. · <b>선위사</b> 李志完 파견, 접대. · <b>하선연·별연·상선연(삼도연)</b> 설행, 陸物·五日次 및 求請 물품 지급 ·釜山館에서 殿牌에 숙배례를 행하고 서계 정납, 회답서계를 받을 때 문밖에서 祗迎, 庭下拜를 행함.
1616.12	·관백승습으로 인한 통신사 파견 요청	·橘智正	·국서 지참. · <b>접위관</b> 沈諤 파견 ·부산의 館所에서 慰宴을 설행함.
1622.01	·1617년 회답검쇄환사 파견에 대한 보빙. ·상경 요청(불허)	·上官玄方, 副官平智順, 都船主源工部智正, 船主平智次, 三船主橘智信, 留船主源永正, 進上押物橘成時, 侍奉僧崇邵, 卜馱押物藤智房, 侍奉平成昌, 伴從25, 格倭120	·국서 지참. · <b>선위사</b> 李敏求 파견 ·釜山館에서 다례를 설행하고, 서계를 정납함.

<표 2>에 제시된 사례를 확인해 보았을 때, 모든 국왕사의 공통점은 관백의 서계, 즉 국서를 지참했다는 점이다. 이는 어떤 국왕사에서든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1629년 玄方이 관백의 명이라고는 하나 국서를 지참하지 않았으므로 조선의 접대 기준에서는 명백히 국왕사의 범주에서 예외 사절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선 조정은 ‘거추사의 예’로 접대하라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개별 사례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 임진전쟁 종결 후 1606년 국서(日本書契라고 되어 있음)를 지참한 국왕사가 처음 내도하였다. 당시 조정 대신들은 조선전기에는 국왕사가 국서를 지참하였을 경우 진상·숙배일에 倭通事가 서계를 승정원에 가서 직접 바치는 것이 규

40) 『선조실록』 39년 9월 경진; 9월 계미

41) 『광해군일기』 1년 4월 임신. 『변례집요』 권1, 別差 에는 ‘正官 玄蘇, 副官 平景直 및 島主差倭 橘智正 등이 324명을 거느리고 書契를 지참하고 와서 上京을 청하였다’고 하였다.

정이었는데, 임진전쟁 후 상경이 금지된 상황이었으므로 동래부에서 별도의 접대 절목을 마련할 필요성<sup>42)</sup>을 제기하였다. 특히 상경하는 국왕사 호송을 위해서는 선위사를 파견해야 했으나 상경이 금지된 상황이었으므로 京官을 接慰官으로 삼아 대마도특송례로 접대하게 하였다.<sup>43)</sup> 국왕사이지만 선위사가 아닌 접위관을 파견했다는 점, 조선 전기의 국왕사 접대례가 아닌 대마도특송례로 접대했다는 점에서 볼 때 조선 전기의 국왕사의 처우에 훨씬 못미치는 접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교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도래한 일본 사절이기 때문에 전쟁의 가해자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었던데다가 관백이 직접 파견한 사신이 아닌 대마도를 통해 파견한 사신이라는 점에서 처우가 격하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이후 국왕사 橘智正은 부산 해변에서 경상감사경상좌병사경상좌수사에게 서계를 奉呈하고 재배한 뒤 헌부하는 의례를 하였다.<sup>44)</sup> 그리고 접위관 김지남으로부터 연향 접대를 받았다.<sup>45)</sup> 국서를 奉呈하는 의례와 연향 접대 의례 담당자가 분리된 점도 특이하지만 서계봉정의례에 참여하는 조선 측 담당관원이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아니라 경상감사경상좌병사경상좌수사인 점도 이후의 일본사신 접대의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이는 조선 후기 과도기적인 국왕사 접대례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1608년 11월에는 일본국왕사로 報聘使가 도래하였다. 1607년 통신사 파견에 대한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 이때 사절은 釜山客使의 殿牌 앞에서 숙배례를 행하고 국서를 정납하였다.<sup>46)</sup> 1608년의 보빙사에 대해서는 실제 파견된 사절이었는지, 파견시기가 1608년인지 1609년인지의 문제로 여전히 의논이 분분한 상황이다. 中村榮孝는 이 사절이 1609년 기유약조 약정을 위해 조선에 온 玄蘇와 平景直 일행과 동일한 사절로 파악하고 이 시기에 도해하여 기유약조의 절목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홍성덕은 1608년 11월과 1609년 3월 사이의 기간이 너무 짧은 점, 1609년 선위사 이지완이 치계한 내용에 의하면 玄蘇와 平景直이 宣醞禮와 肅拜禮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전혀 다른 사절로 파악하였으며 『東萊府接倭狀啓膾錄可考事目錄抄冊』의 기록 또한 오기로 보았다.<sup>47)</sup> 이 사절에 대한 접대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자세히 고증하기 힘들다.

세 번째로 1609년 3월, 正官 玄蘇, 副官 平景直 및 島主差倭 橘智正 등이 소술 320여 명을 거느리고 謝使라고 칭하며 부산에 내도하였다.<sup>48)</sup> 당시 ‘源秀忠의 書契’를 지참하였다고 했으므로 國書를 가지고 온 국왕사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사절은 釜山館에서 서계를 奉納하였는데, 殿牌에 肅拜禮를 행하고 문밖에서 서계를 祇迎하였으며 뜰 아래에서 배례하였다.<sup>49)</sup>

1609년 국왕사절 도해로 기유약조에 의해 일본사신 접대례가 규정된 이후 처음으로 국서를 지참한 국왕사가 1616년 12월 도해하였다. 막부장군의 교체 승습을 이유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 도해한 橘智正 일행이었다. 이들 일행을 접대하기 위해 접위관으로 沈諶이 파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50)</sup> 1617년 1월 8일 접위관 심집은 釜山에 謁지정이 머무는 館所에서 상선연에 해당하는 慰宴을 베풀고 통신사의 파견을 허락한다는 뜻을 전하였다. 당

42) 『선조실록』 39년 10월 신축

43) 『선조실록』 39년 10월 임인; 11월 을해.

44) 『선조실록』 39년 11월 정축.

45) 『선조실록』 39년 11월 기묘.

46) 『東萊府接倭狀啓膾錄可考事目錄抄冊』 1608년(만력36) 11월; 12월.

47) 홍성덕, 앞의 논문, 1996, 94~98쪽.

48) 『광해군일기』 1년 4월 임신; 『변례집요』 권1, 別差, 1608년(1609년의 오기로 보임) 3월.

49) 『東萊府接倭狀啓膾錄可考事目錄抄冊』 1609년(기유) 4월; 6월.

50) 『광해군일기』 9년(1617) 5월 30일 계사.

시 橘智正은 국왕사 자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등한 예로 치러지는 연향을 감당하지 못해 위축되어서 본래의 자리 보다 낮은 자리에 서있었다고 한다.<sup>51)</sup> 1606년에도 국왕사 자격으로 도해한 일이 있었지만, 그때에는 대마도특송사의 예도 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변경된 규정 하에서 갑자기 격상된 접대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622년 1월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국왕사절로, 上官 玄方, 副官 平智順이 150여 명의 일행과 함께 도해하였다. 이들은 1617년 회답겸쇄환사를 파견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국서를 지참하였으며, 상경하여 막부 장군의 뜻을 직접 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상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일본국왕사절은 釜山館에서 다례를 설행하고, 서계를 정납하였다.<sup>52)</sup> 한편 선위사로는 李敏求<sup>53)</sup>가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5차례의 조선후기 국왕사의 접대 사례를 전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같은 국왕사라고 하더라도 접대에 있어서 담당자가 접위관일 때도 있고, 선위사일 때도 있었다. 선위사가 임명되는 경우는 대체로 외교승이 국왕사로 파견되었을 때였다. 외교승에게는 일반 접대보다 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1629년의 경우 玄方이 상경하여 예조연이 설행될 때의 기록을 보면 우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윤 4월 27일 예조의 위로연이 진행될 당시 玄方은 국왕사로서의 접대를 원하고 있었다. 당시 역관 최의길이 상경사절이 국서(國書)를 휴대하지 않았으므로 국왕사로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조연에서는 배례를 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玄方은 “고래로부터 (일본의) 승려는 국왕·대신 앞에서 배례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끝내 예조연의 席上에서 對禮인 읍례를 하였으며, 연회 음식상, 교자, 술 9잔을 행하는 일도 통례대로 하였다.<sup>54)</sup> 이런 기준에 의하면 사절의 구성원이 불명확한 1608년 국왕사를 제외하고는 1606, 1616년 橘智正이 국왕사로 파견되었을 때에는 접위관이, 외교승이 파견된 1609, 1622년 사절에게는 선위사가 임명되어 접대의 격을 달리하였다. 1629년의 경우도 처음에 사절단이 국서를 지참한 것처럼 이야기한 점, 玄方이라는 외교승이 정관이었던 점이 접대관원으로 선위사 임명을 이끌어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상 5차례의 국왕사 접대를 살펴본 결과 1629년 사행이 상경하지 않았다면 부산관에서 숙박 후 서계를 정납하고, 회답서계를 받는 의례와 3도연(하선연, 별연, 상선연)을 접위관이 나 선위사가 설행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상경하게 되면서 모든 연향과 의례는 『해동제국기』 단계의 접대례를 적용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부산에서는 삼포연이 치러지게 된다. 이들이 국왕사에 해당한다면, 상경 전 부산포에 머무르는 동안 선위사가 2차례, 차사원이 1차례 베풀어주는 연향이 설행된다. 반면 거추사에 해당한다면, 차사원이 2차례 연향을 베풀어주는 것이 규정이었다. 실제로는 아래 <표 3>과 같은 접대가 이루어졌다.

표 5 . 1629년 상경사에 대한 동래부에서의 접대

일자	접대
3.17	玄方 일행 부산포 도착
3.24	동래부 주최 小宴에 참석할 것을 일본사신에게 고지함.

51) 『광해군일기』 9년(1617) 1월 8일 갑술. (臣到釜山 橘智正所館, 設行慰宴, 智正不敢當相敵之禮, 瑟縮降等而立)

52) 『번례집요』 권1, 別差倭, 임술(1622) 1월.

53) 당시에 선위사는 이민구(李敏求)로 추정된다. 1621년 11월 14일 기사에 ‘이민구는 선위사이니 파직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광해군일기』 13년(1621) 11월 14일 신해) 또한 이민구가 선위사이지만 실적이 없어 관직을 제수하기도 하였다.(『광해군일기』 14년(1622) 4월 6일 신미)

54) 『方長老上京日史』, 1629년 4월 26일

3.26	동래부사·부산첨사와 玄方 일행이 儻館에서 대면(小宴)
4.06	선위사 정홍명 동래 도착
4.15	상황을 보아 상경을 허락하라는 비국의 첩지작성
4.18	4월 15일 첩지를 전달받음.
4.21	상경 허락의 일을 玄方에게 전달함
4.26	선온연 접대
4.30	2차 연향 접대에 缺席
4.06	부산 출발하여 상경.

※ 정홍명, 『음빙행기』 참조

앞서도 보았듯이 玄方 일행을 접대하는데 있어 조선 측의 방침은 ‘거추사의 예’에 의하는 것이었다. 거추사의 예에 의한다면 차사원이 2차례 연향접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선위사가 임명된 상황이었므로 선위사에 의한 2차례 연향을 설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접대하는 관원은 국왕사의 예에 의한 선위사가, 연향횟수는 거추사의 예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4월 26일에 선온례를, 30일에는 2차연이 예정되어 있었다. 1차 선온례는 예정대로 진행하였지만, 일본사절 측에서 상경인원·상경시 물품·교자의 이용 등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며 불참하였으므로 연향의례에 대한 것은 26일 사례만 보인다.

선온을 받들고 객관으로 들어가니 **객사의 상관 부관 이하가 대문 밖에서 동으로 향해 서고 동래부사는 서로 향해 서서 몸을 굽혀 공경히 맞았다. 선위사가 정문으로 들어가 선온을 탁자 위에 놓고 동쪽 가까이서 서쪽을 향해 서니 객사들이 사배례를 행하고 차례로 올라가 마시기를 예의대로 하고 인하여 연회를 베풀었는데 동서로 나뉘어 교의의 위에 앉고** 기생의 음악이 요란했다. **아홉 잔을** 든 뒤에 **중배례**를 행하여 서서 마셨는데 부관 평지광이 선온인 자소주를 마시며 잔을 완전히 비우더니 취하여 정신을 못 차려 붙들려서 나갔고 현방도 취하여 역시 차분한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대소의 모든 왜인들도 사색이 아주 기쁜 기색이었으며 모두 감격한다고 했다.<sup>55)</sup>

조선전기에 선위사가 삼포연에서 행한 선온례를 간략히 정리하면, ‘선위사가 선온을 가지고 객관에 도착 → 중문으로 입장 → 객사는 대문 밖에서 맞이 → 선위사가 (연향)대청에 이르러 선온을 탁자에 안치 → (선위사) 동쪽으로 가까이 와서 서쪽을 향해 선다 → 객사는 서문으로 입장 - 서쪽 뜰에서 동쪽으로 올라와 북쪽을 향해 선다 → 사배례 → 술순배 → 뜰 아래로 내려가 사배례 → 상관·부관이 다시 서쪽 계단에서 대청으로 올라와 선위사 앞에서 재배 → 선위사 답배 → 각각의 위치에서 연회’를 행한다.<sup>56)</sup> 정홍명이 상경사절에게 행한 선온례의 행례는 조선전기 국왕사에게 베푸는 선온례와 형식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이때문에 玄方도 4월 26일 행해진 선온례에 대해 ‘국왕사 접대례와 동일하게 진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선후기 상경하는 거추사에 대한 선온례(차사원이 주관) 자체가 행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행해진 의례라는 점에서 전후 비교할 만한 사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 국왕사 및 거추사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차왜가 생긴 이후에는 접위관과 일본사신이 ‘동(조)-서(일)’로 위치하여 상음례를 행하

55) 정홍명, 『飲氷行記』, 4월 26일.

56) 신숙주, 『해동제국기』, 조빙응접기, 諸道宴儀.

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연향의례 또한 사절의 성격과 당시 정세에 따라 변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일본사절의 상경로와 접대

#### 1) 일본사절의 상경

1609년 약정된 기유약조에서는 임진전쟁 이후에는 일본사신이 상경한 적이 없으므로 조선 전기 상경인원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해동제국기』에 따르면, 상경인원은 국왕사일 경우 25인 거추사인 경우 15인이었다.<sup>57)</sup> 하지만 4월 26일에 선위사 정홍명에 의해 연향이 설행되고 난 뒤 상경하는 인원수로 인해 쟁논이 벌어져 4월 30일 2차연에 불출석하는 등 상경이 잠시 지체되었다. 일본사절이 從倭 인원수를 문제삼은 것<sup>58)</sup>이다. 상경일자는 윤4월 6일로 정해졌으나, 玄方 일행은 종왜 인원수를 포함시켜달라는 요구와 가마를 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 짐을 싣는 말의 수도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다.<sup>59)</sup> 이것은 애초에 비변사에서 접대 기준으로 제기하였던 ‘거추사의 예’로 접대하며, 모든 일은 줄여서 간소하게 하라<sup>60)</sup>는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었다. 윤 4월 6일에 일본사절이 부산을 출발하는 날 선위사 정홍명은 조정의 회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사절이 행패를 부리려 하므로 하는 수 없이 종왜 4명을 허락하고, 玄方도 저의 나라 소교를 타고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sup>61)</sup> 양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정사와 부사를 비롯하여 侍奉 2, 반종 11, 從倭 4명으로 총 19명이 상경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62)</sup> 즉 선위사에 의해 거추사행 보다는 4명이 많고, 국왕사 보다는 6명이 적은 인원수로 절충된 상황이었다. 상경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6 . 1629년 상경사행 인원

출전	상경인원
승정원일기	正使, 副使, 侍奉2, 伴從11, 從倭4
접왜식례	正官(玄方)1, 副官1, 정관시봉승1, 부관시봉승1, 반종15
御上京之時每日記	長老(정사 玄方), 采女(부사 杉村采女), 除藏司(長老侍奉), 李兵衛(有田, 采女侍奉), 玄搏, 所右衛門, 三四郎, 惣助, 少八, 吉助, 格右衛門, 勘太郎, 勘右衛門, 久作, 彌兵衛, 七介, 加右衛門(松尾), 久兵衛(平山), 源右衛門

한편 임진전쟁의 발발로 인해 일본사신의 상경로는 차단되었기 때문에 이동 경로 또한 전례를 상고해야 했다. 당시 가장 근접한 시기의 규례는 『고사촬요(攷事撮要)』의 왜인조경도로(倭人朝京道路)였다. 玄方 일행도 이 규례를 따르고 있다. 이 규례를 바탕으로 실제 일본사절단이

57) 신숙주, 『해동제국기』 「朝聘應接紀」 上京人數.

58) 『승정원일기』 1629년(인조7) 윤4월 1일 병진.

59) 『승정원일기』 1629년(인조7) 윤4월 2일 정사. 정홍명, 『飲氷行記』, 4월 27:28:29일.

60) 정홍명, 『飲氷行記』, 4월 19일.

61) 정홍명, 『飲氷行記』, 윤4월 6일. 정홍명은 윤4월 9일에는 4명의 인원을 늘린 것에 대해 대죄를 청하는 書目을 제출하였다.(『승정원일기』 1629년(인조7) 윤4월 9일 갑자)

62) 『승정원일기』 1629년(인조7) 윤4월 9일 갑자.

상경한 경로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7 . 1629년 亥方 일행의 상경로 및 귀로

<p>부산에서 상경하는 길(왕로)</p>	<p>부산 출발(윤4.6. 정오 무렵) → 30리. 동래부 교외에서 장막치고 연례(宴禮) → (50리) → 양산도착(윤4.6. 오후6시 무렵) - 양산의 객관[梁山館] 출발(윤4.7) - (대청에서 主賓의 예를 행함) → (도중에 서쪽으로 10이 정도인 산길을 지나는데 험한 절벽이 있었음. 오른쪽으로는 긴 강이 있고, 북으로 향해서 흐르고 있었음) → 무흘역(無訖驛)<sup>63</sup>에서 휴식(정오 무렵) → 밀양성(密陽城)에 도착(윤4.7. 오후 6시 무렵. 양산에서 밀양성까지 110리) - 능파당(凌波堂)<sup>64</sup>에서 숙박 - 선위사가 밀양부사 이언영(李彦英)과 함께 능파당 위에서 소연(小宴)<sup>65</sup> 설행(윤4.8. 식후) → 출발(윤4.8. 연회 종료 후) → 7-8정(町, 1町은 109m) 이동 → 공자문묘에서 하마(下馬) → 유문(楡門)<sup>66</sup>에서 점심(정오 무렵) → 청도(淸道) 도착(오후 6시 무렵. 밀양에서 60리) - 청도 출발(윤4.9) → 파잠(巴岑, 팔조령) → 오동원(梧桐院)<sup>67</sup>에서 점심(정오 무렵) → 대구에 도착(윤4.9. 오후 6시 경. 청도에서 80리) - 대구에 머무름(윤4.10) → 공연(公宴)<sup>68</sup> 설행. 선위사와 왜학역관 이언서·최의길과 함께 대반(對盤)<sup>69</sup>함. 연회음식상이 아주 수려함. 舞樂도 있었음. → 연향도중 일본의 우치차(宇治茶)<sup>70</sup>와 남도주(南都酒)를 상에 내놓음 - 대구 출발(윤4.11) → 동미원(洞美院)<sup>71</sup>에서 점심(정오 무렵) - (이곳에 인가가 없어서 假家를 설치하여 접대함) → 인동부(仁同府)<sup>72</sup>에 도착(오후 6시 무렵. 대구에서 80리) - 인동부 출발(윤4.12. 오전 10시 경) → 해평현(海平縣)<sup>73</sup>에서 점심(정오 무렵) - (영접하는 관사는 모두 광야의 공터에 가가를 설치) → 선산부(善山府)<sup>74</sup>에 도착(오후 6시 무렵) - (객관의 동남쪽에 좋은 산이 있고, 북쪽 산은 객사의 뒤에 해당함. 송백이 숲을 이루고, 초화가 무성함. 사망의 산 아래에 민가가 연이어 있고, 뽕나무와 삼나무 밭이 둘러싸고 있음) - 선산에 머무름(윤4.13) - 선산 출발(윤4.14) → 죽현(竹峴, 죽령)<sup>75</sup> → (20~30리) → 오리원(五里院)<sup>76</sup>에서 점심 → 상주(尙州)에 도착(오후 5시 경. 선산에서 60리) - 상주 출발(윤4.15) → 함창현(咸昌縣)<sup>77</sup>에 도착(오후 2시 경. 상주에서 50리) - (이동 거리가 짧아 점심은 없었음) - (함창현 객관은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 민가가 시야의 아래에 있었음. 객관 앞에는 소나무가, 오른쪽에는 연못이 있었음.) - 함창현 출발(윤4.16. 비가 내려 정오 무렵 출발) → 회봉(回峰)·담봉(沓峰) 경유 → 유곡(幽谷)<sup>78</sup>에서 점심 → 문경현(聞慶縣) 도착(오후 5시경. 함창에서 60리) - 문경현 출발(윤4.17) → 조령(鳥嶺)<sup>79</sup> → 안보역(安保驛)<sup>80</sup>에서 휴식(정오 무렵) → 충주(忠州) 도착(오후 6시경. 문경에서 110리) - 충주에 머무름(윤4.18) - 순찰사가 연향(路宴) 설행. 男樂과 女樂이 줄을 나누어 가무를 함 - 충주 출발(윤4.19) → (10리) 김천(金川) - (강배로 갈아탐) → 가흥(嘉興)<sup>81</sup>에서 점심(정오 무렵) → 흥원(興原)<sup>82</sup> 도착(오후 8시 경. 충주에서 85리) - (이른 아침 차 접대는 받지 않음) 흥원 출발(윤4.20. 식사 후) → 이포(利浦)<sup>83</sup> 도착(오후 4시경. 흥원에서 80리) - 이포 출발(윤4.21. 오전 10시경) → 대탄(大灘)<sup>84</sup>에서 점심 → 봉안(奉安)<sup>85</sup>에 도착(오후 6시경. 이포에서 90리) - 봉안 출발(윤4.22. 오전 4시경) → 오후 2시경 한강 연안<sup>86</sup>에 도착</p>
<p>한강에서 부산 포로 내려가는 길(귀로)</p>	<p>한양(한성) 출발(5.21) → 한강 도착(5.21) → (5리) → 배에서 숙박(5.21) → 한강 강변에서 출발(5.22) → 江北村에서 점심 → 늦게 봉안(奉安)<sup>87</sup>에 도착(5.22) - (접위관이 술과 안주를 배로 가지고 옴) - 봉안 출발(5.23) → 여주(驪州)<sup>88</sup> 도착(5.23. 戌時-오후 8시경) - 여주 출발(5.24) → 신록사(神勒寺)<sup>89</sup>에 오름(정오 무렵) - 흥원(興原)<sup>90</sup>을 출발함(5.25) → 가흥(嘉興)<sup>91</sup>에서 점심 → 충주(忠州)<sup>92</sup>에 도착(5.25) - 배에서 내려서 말을 탐(5.26) → 충주관(忠州館)에 들어감(5.26. 정오 무렵) - (접대를 두터이 받음. 순찰사가 사자를 보내어 내일 연향을 재촉한다고 하였으나<sup>93</sup> 귀로가 바빠서 사양하겠다고 말하고 허락하지 않음) - 충주 출발(5.27. 巳時) → 안보역(安保驛)<sup>94</sup>에서 점심(정오) → 문경(聞慶)<sup>95</sup>에 도착(5.27. 오후 8시 무렵) - 문경 출발(5.28. 비바람을 기다린 후) → 함창(咸昌)<sup>96</sup>에 도착(5.28. 오후 6시 경) - 출발(5.29) - (榮州와 예천 두 지역 수령이 가는 날 回禮로 別幅을 보냄) → 상주(尙州)<sup>97</sup>에 도착(5.29. 오후6시 경) - (순찰사와 접위관이 내일은 연향을 한다고 했으나 재차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음) - 상주에서 머무름(5.30<sup>98</sup>) - (5.30. 公宴을 행함) - (6.1. 순찰사가 우리들이 요구했던 약재를 전별품으로 증급함. 나는 둥근 부채[團扇]로 사례함.) - 상주 출발(6.1) → (산길로 50리) → 낙동강 어귀<sup>99</sup>에 도착함(6.1) - (낙동강 나무를 출발함(6.2) - (6.2. 정오 무렵 仁同府 수령이 전날의 회례 별폭이 있었음) → (120~130리 정도 이동) → 배에서 숙박함(6.2) - 출발</p>

	(6.3) → 강을 따라 60리 정도 이동 → 비바람이 거세어 갈대 사이에서 머무름(6.3) - 출발(6.4) → <b>감동포(甘同浦)<sup>100</sup></b> 에 도착(6.4. 저녁) → 동래와 부산의 문안사(問安使)가 도착(6.5) → 식후 <b>양산(梁山)<sup>101</sup></b> 에서 인마(人馬)가 와서 준비함 → <b>산길로 50~60리 이동</b> → <b>부산관(釜山館, 부산의 두모포왜관)에</b> 도착(6.5. 오후 2시 무렵) - (脇田 <sup>102</sup> , 服部 <sup>103</sup> ) 등과 豊前代官 平山 <sup>104</sup> , 왜관에 유관 중인 자 3~4인이 각각 술을 가지고 20~30리 정도인 곳에서 출영(出迎)함.)
--	---

※ 『方長老上京日史』, 『御上京之時每日記』 참조

- 63) 무흘역. 밀양부의 관내에 있는 역.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을 美田里.
- 64) 능파당. 밀양읍성 내에 있는 凌波閣. 밀양강 북쪽 기슭에 있는 영남루의 동측에 있는 부속건축.
- 65) 역자는 이 小宴을 路宴으로 보았음. 하지만 노연이라고 하기에는 과일상을 올린 정도이므로 소략한 감이 있음. 아마도 관찰사가 아닌 지방수령이 행하는 노연이었으므로 소연으로 행한 것으로 보임.
- 66) 楡門驛.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楡湖里.
- 67)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梧里에 있다.
- 68) 여기에서는 순찰사가 주최하는 路宴을 가리킨다. 玄方 일행이 받은 2번째 路宴이자 순찰사가 주최한 路宴이다.(역자 주)
- 69) 對盤. 宴席에서 객이 서로 대면해서 음식상을 마주하는 것. 玄方 일행에게 적용되었던 거추사(巨酋使)의 노연에서는 순찰사는 북벽에서 남쪽으로 면하여 상위에 앉는 것이 규정이었지만, 실제로는 玄方과 순찰사, 杉村采女와 선위사가 대등하게 마주하는 형식(客東主西)을 취했다.(『御上京之時每日記』, 1629년 4월 10일)
- 70) 교토 남부의 宇治에서 만드는 차. 중세 이래로 銘茶로 유명하다.
- 71) 洞美院. 崇儒院 혹은 東明院이라고 한다. 경상북도 칠곡군 東明面.
- 72) 경상도의 읍으로 읍치는 경상북도 구미시 仁義洞.
- 73) 해평현. 고려시대에는 善山府의 속현.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 74) 읍치는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을 路上洞.
- 75) 竹峴. 선산부의 북쪽 20리에 있는 고개로 竹嶺이다. 상주와 경계.
- 76) 五里院. 梧里院을 말한다. 경상북도 구미시 長川面.
- 77) 함창현. 읍치는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舊鄉里.
- 78) 幽谷. 문경의 남단에 있는 유곡역. 현재 경상북도 문경시 店村4동 幽谷洞.
- 79) 鳥嶺. 경상도와 충청도 사이에 있는 3개의 고개(조령, 죽령, 추풍령) 중 하나. 석조 관문을 설치하여 여행자들의 통요 및 통제를 함.
- 80) 安保驛. 충청도 연풍현에 있는 역.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안보리.
- 81) 嘉興驛을 말함. 충주의 북쪽 30리에 있는 역원. 현재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 근접한 수로를 건너면 嘉興站이 있어서 그곳에서 육지길로 이어진다.
- 82) 興原倉. 강원도 원주목의 서쪽에 세금을 집적하는 창고가 있다. 한성으로 가면서 한강 수운의 거점이다. 강원도 원주시 부운면 흥호리.
- 83) 利浦. 경기도 여주목의 서쪽 43리에 있는 도선장.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 84) 大灘. 경기도 여주목에 있는 水站.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 대청단.
- 85) 奉安. 경기도 양주목 평구에 있는 역 중 하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봉안.
- 86) 『御上京之時每日記』 4월 22일 조에 의하면 玄方 일행은 豆毛浦라는 도선장에서 물으로 내렸다고 하고 있다.
- 87) 경기도 남양주시 烏安面 陵內里 奉安.
- 88) 경기도 여주시 弘文洞.
- 89) 여주(남한강)의 동쪽 기슭 봉미산에 있는 절. 報恩寺, 巒寺라고도 한다.
- 90) 강원도 원주시 富論面 흥호리.
- 91)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
- 92) 충청북도 충주시.
- 93) 『御上京之時每日記』 5월 26일조에는 연향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충주목사라고 되어 있다.
- 94)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안보리.
- 95) 경상북도 문경시.
- 96)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 97) 경상북도 상주시.
- 98) 이날은 조선 달력으로는 6월 1일이라고 함.

상경사절의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부산포 단일왜관 시기의 상경로가 반영되어 있는 『고사촬요(故事撮要)』의 왜인조경도로(倭人朝京道路)에서 ‘中路+水路’를 이용하여 한강에 도착하였다.

표 8. 부산포 단일왜관 시기 일본사신 상경로

도로	경로
중로 (中路)	광주목(廣州牧), 경안역(慶安驛), 이천부(利川府), 무극역(無極驛), 음죽현(陰竹縣), 괴산군(槐山郡), 연풍현(延豐縣), 안보역(安保驛), 문경현(聞慶縣), 함창현(咸昌縣), 상주목(尙州牧), 유곡역(幽谷驛), 선산부(善山府), 해평(海平), 인동현(仁同縣), 팔거(八莒), 대구부(大丘府), 경산현(慶山縣), 성현역(省峴驛), 청도군(淸道郡), 유천역(楡川驛), 밀양부(密陽府), 무흘역(無訖驛), 황산역(黃山驛), 양산군(梁山郡), 소산역(蘇山驛), <b>부산포(釜山浦)</b>
좌로 (左路)	평구역(平丘驛), 봉안역(奉安驛), 양근군(楊根郡), 여주목(驪州牧), 안평역(安平驛), 가흥역(嘉興驛), <b>충주목(忠州牧)</b> , 황강역(黃江驛), 수산역(壽山驛), <b>단양군(丹陽郡)</b> , <b>풍기군(豊基郡)</b> , <b>영천군(榮川郡)</b> , 평은역(平恩驛), 웅천역(甕泉驛), <b>의성현(義城縣)</b> , 청로역(靑路驛), <b>의흥현(義興縣)</b> , <b>신녕현(新寧縣)</b> , <b>영천군(永川郡)</b> , 아화역(阿火驛), 모랑역(牟梁驛), <b>경주부(慶州府)</b> , 조역(朝驛), 구어역(仇於驛), 울산군(蔚山郡), <b>간곡역(肝谷驛)</b> , 아월역(阿月驛), 소산역, <b>부산포(釜山浦)</b>
우로 (右路)	양재역(良才驛), 낙생역(樂生驛), 용인현(龍仁縣), 양지현(陽智縣), 죽산현(竹山縣), 진천현(鎭川縣), 청주목(淸州牧), 문의현(文義縣), 옥천군(沃川郡), 영동현(永同縣), 황간현(黃澗縣), 추풍역(秋豐驛), 금산군(金山郡), 부상역(扶桑驛), 성주목(星州牧), 무계(茂溪), 현풍현(玄風縣), 창녕현(昌寧縣), 영산현(靈山縣), 영포역(靈浦驛), 창원부(昌原府), 자여역(自如驛), 김해부(金海府), <b>양산군(梁山郡)</b> , <b>용당(龍堂)</b> , <b>부산포</b>
수로 (水路)	<b>두모포(豆毛浦)</b> , 암회사찰(巖回寺站), <b>봉안(奉安)</b> , <b>대단(大灘)</b> , 이포(梨浦), <b>흥원(興原)</b> , <b>가흥(可興)</b> , 금선(金選), 단월(丹月), 안보(安保), 유곡역(幽谷驛), 함창현(咸昌縣), 낙동(洛東), 월파정(月波亭), 해평, 약수(若水), 팔거, 동원(東院), 하빈(河濱), 화원(花園), 가리(加利), 쌍산(雙山), 개산(開山), 사막(沙幕), 마수원(馬首院), 지산(枝山), 불당원(佛堂院), 요광(要光), 주물연(主勿淵), 수산(守山), 도요저(都要渚), <b>용당</b> , <b>감동포(甘同浦)</b> , <b>부산포</b>

※ 『고사촬요』 「倭人朝京道路」

한편 상경하는 경로상에서 玄方 일행을 접대하기 위한 조선의 준비도 확인할 수 있다. 갑작스런 일본사신의 상경 결정으로 인해 객관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지방에서는 가가(假家)의 설치 등으로 사신의 객관을 준비하였다. 점심 식사를 했던 칠곡의 동미원(洞美院), 구미의 해평현(海平縣) 등지에는 가가(假家)를 설치하여 사신들을 접대하였다.

또한 머무르는 곳 중 밀양·대구·충주에서는 노연(路宴)이 행해졌다. 玄方 일행의 노연은 『해동제국기』에 기재된 규정에 비하면 규정 보다 횡수가 줄어든 모습이다. 일본국왕사의 경우 경상도 3곳, 충청도와 경기도에서 각각 1곳으로 총 5회, 거추사의 경우 경상도 2곳, 충청도와 경기도가 각각 1곳으로 총 4회의 노연이 실행되는 것이 규정이었다. 하지만 玄方 일행은 거추사에도 못 미치는 3회의 노연이 치러져 일본사신의 상경에 대한 우려나 불만이 연회의 횡수로 나타난 것은 아

99) 『御上京之時每日記』에서는 ‘낙점(洛点)’(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이라고 되어있음.

100)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01) 경상남도 양산시.

102) 脇田九郎兵衛. 대마도의 무역특권상인 60인 중 1인.

103) 服部. 代官인 服部伝右衛門.

104) 柳川調興 휘하의 代官인 平山七郎左衛門. 60인 상인.

난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즉 상경 인원수는 거추사의 기준 보다 늘려주었으나 실제 연향 접대의 횟수로 볼 때에는 그 보다 못 미치는 접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연 이 사절에 ‘국왕사’ 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 4. 맺음말

본 연구는 1629년 상경사절인 玄方일행에 대한 상경로에서의 접대, 즉 상경인원·접대례의 기준·삼포연·노연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국왕사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다. 하지만 자료를 완전히 다 섭렵하지 못하여 불안정한 결과로 발표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연구 내용만으로 1629년 사행의 특성을 몇 가지로 정리하려 한다.

① 玄方 일행은 관백의 명으로 인해 도해했다고 하며 국왕사격의 접대를 받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국왕사절로 인식한 조선 측은 선위사를 파견하였다.

② 차후 국서를 지참하지 않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조선은 일관되게 ‘거추사의 예’로 접대하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선위사가 일본사신에게 완강하게 일을 진행하지 못해 상경인원을 거추사의 예보다 4명 더 추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이유로 정홍명은 선위사에서 접위관으로, 한강에서는 접위관마저 교체되었다.

③ 상경과정에서의 노연의 횟수 또한 거추사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규정에 못미치는 횟수로 연향이 치러졌다.

④ 이상의 사례로 볼 때 일보 연구에서 본 것처럼 玄方일행을 國王使로 명명할 수 있을지 재고의 여지가 있다

## <1629년 일본사절 상경과정에서의 접대에 대하여>

허지은(서강대)

본 발표는 17세기 전반 조일 외교의 과도기(기유약조 체결 이후부터 국서개작사건 직전까지)인 1629년에 이루어진 겐포(玄方) 일행의 상경을 중심으로, 조선의 일본사절 접대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한 연구입니다.

1629년 겐포 일행이 임진전쟁 이후 유일한 일본 사절의 상경 사례로, 규례의 공백 속에서 접위관과 선위사, 국왕사와 거추사라는 접대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를 밝힌 점은 조일외교사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좋은 발표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정묘호란 직후, 조선의 외교 전략

당시 조선은 북쪽의 후금과 남쪽의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외교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상경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조 정권은 남방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으로 제한된 상경을 허용했습니다.

이 점에서 1629년 상경은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전란 이후 외교적 위기관리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접대가 지닌 정치적 성격이 좀 더 강조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됩니다. 이 점을 접대의 정치성과 연결해 조금 더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막부-쓰시마번-조선의 삼중 외교 구조

1627년 정묘호란으로 조선이 혼란스러울 때, 일본(막부와 쓰시마번)은 원병 제공을 구실로 조선 내정과 대륙 정보 파악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629년 겐포 일행의 상경은 단순한 예외적 방문이 아니라, 정묘호란 이후 일본이 조선의 안보 불안을 이용해 외교적 발언권을 확대하려 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경 결정 과정에서 막부와 쓰시마의 이중 구조가 미친 실질적 영향에 대해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 3. 의례와 정치의 접점

겐포 일행은 무기와 화약, 목면 600동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 경제 이득과 정보 획득을 목표로 한 정치적 사절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한 조선의 절충적 접대는 '의례 속의 정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형식과 실리의 긴장 관계가 드러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된다면, 조선의 현실적 외교 감각과 의례 운용의 유연성이 더 잘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 4. 1629년 사행과 1630년대 외교체제 정비의 연계

1629년 상경사건은 단 한 번의 예외이자 동시에 조일외교 체제를 새로 짜기 위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조선은 전란의 경험 속에서 외교의 형식을 정비하고, 일본은 막부-쓰시마 체제를 정식화해 가는 과정에서 국서 개작·이테양윤번제·통신사 제도 등으로 체계를 완성해 갑니다. 따라서 1629년 상경은 단순한 의례의 특수 사례가 아니라, 1620~30년대 조일관계 재편의 기점으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 본 연구의 의미가 한층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발표는 그 현장의 접대례와 협상 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의례의 틀을 넘어 실제 외교 현장의 긴장 구조와 제도적 변화에 주목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1630년대 외교체제 정비(국서개작사건, 통신사 파견, 관수와 윤번제의 제도화)로 이어지는 거시적 흐름과 연계한 연구로 이어진다면, 조선후기 대일외교사의 구조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3발표>

근세 초 조일관계의 안정적 운영과  
쓰시마 재판역의 역할  
-아리타 모쿠베에(有田拙兵衛)를 중심으로

발표 : 이형주(국민대학교) / 토론 : 이재훈(동의대학교)

## <제3발표>

### 근세 초 조일관계의 안정적 운영과 쓰시마 재판역의 역할 -아리타 모쿠베에(有田杵兵衛)를 중심으로-

이형주(국민대학교 일본학과)

#### 1. 들어가며

근세, 즉 일본에서 말하는 에도시대의 조선-일본 통교는 부산에 설치된 왜관이라는 공간을 무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왜관에서 이루어지는 양국 통교는 여러 약조를 통해 유지되고 있었다. '임진왜란에 의한 양국의 단절 상태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또한 에도시대를 통해 양국의 통교 관계의 기본선이 된 약조<sup>1)</sup>'로 평가되는 1609년의 기유약조(己酉約條)를 시작으로 1683년의 계해약조(癸亥約條), 1711년의 신묘약조(辛卯約條), 1809년의 기사약조(己巳約條) 등 차례로 맺어진 약조들은 양국 통교의 기본이 되었다.<sup>2)</sup> 물론 이러한 약조에 포함되지 않은 세세하고 다양한 현안들도 시시각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매번 양국이 교섭을 통해 제도화되거나 선례로서 작용하며 안정적인 왜관 운영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630년대 중엽은 근세 조일 관계에서 하나의 획기로 평가될 수 있다. 국서개작사건(야나가와잇켄[柳川一件])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던 1634년 12월에는 '소씨(宗氏, 인용자: 쓰시마번주 가문)의 막부에 대한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인용자: 증명)'으로 마상재(馬上才)가 처음 파견되었으며, 1635년 3월 해당 사건이 쓰시마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의 승리로 끝나면서, 쓰시마번에 교토 고잔(五山)의 승려가 교대로 파견되는 소위 '이정암 윤번제(以酌庵輪番制)'가 실시되었고, 조선 측이 국서에 기재하는 막부 쇼군(將軍)의 호칭이 대군(大君)으로 변경되며 이른바 '대군 외교(大君外交)'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또한 쓰시마번의 가신단이 소유하고 있던 조선 통교 권리가 쓰시마번주 소(宗) 가문에 집중되었고, 겸대제(兼帶制) 실시와 함께 외교와 무역이 분리되면서 쓰시마번은 무역 이윤이 좋은 사무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sup>3)</sup>. 그리고 해당 사건 이후 조선 통교에 관한 번주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왜관을 대표하는 관수(館守)가 처음으로 배치되기도 하는 등<sup>4)</sup> 1630년대 중반은 조일 관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이에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는 해당 시기를 '중세와의 결별'이 일어난 시기로, 본격적인 근세적 조일 관계가 시작된 시기로 평가하기도 했다.<sup>5)</sup>

한편, 이렇게 조일 관계에 여러 변화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던 시기에 수시로 쓰시마와 왜관을 오가며 조선과의 교섭에서 활약하던 인물이 재판역(裁判役) 아리타 모쿠베에(有田杵兵衛)이다. 아리타는 조선 측 사료에는 '등지승(藤智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활동한 17세기

1)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a,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p.44.

2) 각 약조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윤유숙, 『近世日朝通交と倭館』, 岩波書店, 2011을 참조.

3) 다시로 가즈이b, 『新・倭館-鎖国時代の日本人町』, ゆまに書房, 2011, pp.42-44.

4) 오사 마사노리(長正統), 「日鮮関係における記録の時代」, 『東洋学報』50(4), 1968, p.76.

5) 다시로 가즈이b, 위의 책, pp.38-46.

초중반은 쓰시마 측의 사료가 부족한 탓에, 그 활동은 대체로 조선 측 사료를 인용하여 '해당 교섭은 등지승이 담당했다' 정도로만 간략히 언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쓰시마 측 사료를 토대로 아리타의 활동을 확인하고, 1630년대라는 변혁기에 그가 안정적인 조일 관계의 기반이 형성에 어떠한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주로 조선 측 기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17세기 초중반 조일 관계사의 연구 시야를 쓰시마 측 사료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해당 시기 아리타가 임명되었던 재판역이란 직책의 기능과 의의 또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2. 아리타 모쿠베에(有田杓兵衛)와 관련 사료

아리타 모쿠베에의 이력에 대해서는 줄고에서 간단히 다룬 바가 있는데, 그 대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6)</sup> 우선, 아리타가 임명되었던 직책인 재판역(裁判役, 조선 측에서는 '재판차왜 [裁判差倭]'라고 함)에 대해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재판역이란 조선과의 교섭 실무를 위해 쓰시마번이 임명했던 직책으로, 쓰시마 측 사료인 「和館事考」<sup>7)</sup>의 「裁判事考」라는 항목에서는 '양국 교제를 주관하는 직책으로, 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兩國交際主管之職、而不可無其人焉者也)'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그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바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같은 사료에서는 '오래된 일은 알기 어렵다. 임진년(인용자: 1592년) 이전에 그 직책을 맡은 것은 유즈야 모리히로였다. 임진년 후 그 직책을 맡은 것은 이데 야로쿠자에몬 도모마사이였다(往古者今難考也、壬辰之前掌其職者袖谷盛広其人也、壬辰之後掌其職者井出弥六左衛門智正其人也)' 정도로만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즉, 일본에서 에도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쓰시마번은 재판역을 임명하고 있었지만, 언제부터 어떠한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등의 자세한 내역은 미지의 영역인 채로 남아 있다. 그러나 임진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위 사료에 따르면, 임진년 이후 처음으로 재판역에 임명된 인물은 이데 야로쿠자에몬(井出弥六左衛門), 즉 조선 측 사료에 '굴지정(橘智正)'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sup>8)</sup> 사료에서 파악되는 한 그가 처음으로 조선에 도해한 것은 1600년 4월의 일로, 소 요시토시(宗義智)의 명을 받아 포로 300여 명을 송환하며 국교 회복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된다.<sup>9)</sup> 다만, 이데가 처음부터 '재판역'이라는 직책으로 조선과 쓰시마를 왕래했던 것은 아니었다. 1604년 12월 조선의 탐적사(探賊使) 일행이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와의 회견을 위해 쓰시마를 출발했을 때,

6) 이하, 재판역에 대한 설명과 아리타 모쿠베에까지 재판역에 임명된 인물들의 이력은, 줄고, 「一七世紀の裁判役—対馬藩と朝鮮の外交折衝担当官—」, 『近世日朝関係と対馬藩の裁判役—日朝外交折衝における裁判役の役割を中心に—』, 나고야대학대학원 인문학연구과 박사학위논문, 2023, pp.16-20에서 인용.

7) 「和館事考三」,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등록번호: MF0000736, 소장문서번호: 4381(이하, '국편, 등록번호, 소장문서번호'로 약기). 선행 연구에 따르면 1678년에 성립되었다고 한다(金義煥, 「対馬宗家文書「和館事考」について」, 『日本文化史研究』5, 1983, p.2).

8) 사료의 부족으로 자세한 이력은 알 수 없다. 임진왜란 당시 종군 통사들의 명단에 같은 이름이 보이거나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으며, 1617년 회담검쇄환사의 사행록인 『東槎上日録』 1617년 7월 19일자에 '이데의 부인은 조선 사람이라고 한다(蓋智正妻、我國女人云)'라는 정보도 보이나, 그 진위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데(井出)'라는 성을 통해 그가 '육십인(六十人)'이라 불리는 쓰시마의 조선 무역 특권 상인 집단에 속하는 집안 출신이었음은 알 수 있다.

9) 『亂中雜錄』4, 경자년 상.

소 요시토시가 이데를 동행시키면서 처음으로 그를 재판역으로 임명했다.<sup>10)</sup> 이후 이데는 이에야스의(명의로 위조한) 국서와 범릉적(이라고 칭하는) 쓰시마인과 함께 조선으로 건너 오고, 3차례의 회담검쇄환사의 이동을 담당하는 등 임진왜란 후 양국 국교 회복과 그 직후에 재판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sup>11)</sup>

그리고 이데의 뒤를 이어 후임 재판역에 임명된 인물이 아리타 모쿠베에이다. 현존하는 아리타씨(有田氏)의 계보<sup>12)</sup>에 따르면, 그는 1587년 12월 18일 후지 사콘(藤左近)의 3남으로 태어나 아리타 모쿠노조(有田奎允)<sup>13)</sup>의 양자가 되었다고 한다. 사료의 특성상 정확한 진위까지는 파악할 수 없으나, 근세 초기 쓰시마번의 외교승으로 활약하며 이정암을 열은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와 그 뒤를 이은 기하쿠 겐포(規伯玄方)에게서 조선 통교를 배웠다고 한다. 1614년에는 이득송선의 일원으로 처음 왜관에 건너갔으며, 그 후에도 1617년과 1624년의 회담검쇄환사 파견 당시에는 이데와 함께 왜관에 건너간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1624년 조년(町人) 신분으로 쓰시마번의 조카마치(城下町) 운영에 관여하는 다섯 명의 마치도시요리(町年寄) 중 한 명으로 임명되었고, 1629년에는 근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울을 다녀온 일본 사절인 국왕사(國王使)의 일원에 포함되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경력을 거친 뒤 1632년 아리타는 46세의 나이에 이데의 후임으로 재판역에 임명되었고,<sup>14)</sup> 1651년 후임 가스타 고로사에몬(勝田五郎左衛門)과 교대한 해에 사망했다.

당시 재판역으로서 아리타의 활약을 비교적 상세하게 말해주는 쓰시마 측의 사료로는, 『分類紀事大綱』에 수록된 「裁判有田奎兵衛覚書」(이하, '초대 모쿠베에 각서'),<sup>15)</sup> 「有田奎兵衛裁判御役之節重立候御用相整候覚書」(이하, '2대 모쿠베에 각서'),<sup>16)</sup> 그리고 위에 언급한 아리타씨의 계보에 수록된 각종 문서(이하, '계보')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초대 모쿠베에 각서'는 쓰시마번에서 1482년부터 1721년까지 조선 통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리한 제1기 『分類紀事大綱』의 34책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제1기 『分類紀事大綱』은 조선 관련 문서를 관장하는 조센카타(朝鮮方)의 고시 쓰네에몬(越常右衛門)이 1719년부터

10) 『通航一覽』27, 「朝鮮国部」3.

11) 쓰시마에서 범릉적이라고 칭하여 데려온 쓰시마인은 '마고사구(麻古沙九)'와 '마다화지(麻多化之)'였는데('마고사구[孫作]'나 '마타하치[又八]' 정도의 음차로 추정), 『선조실록』 1606년 11월 17일 자에 보이는 '마다화지'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이데의 '내가 조선에 가서 허튼소리 하지 않고 모양 좋게 공사(公事)를 받든다면 너의 어머니와 아내는 내가 양료(糧料)를 주어 후하게 보살피겠다'는 제안에 속아서 조선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단순히 범릉적을 압송하는 역할만 맡은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범릉적 만들기'에 관여하는 등 임진왜란 후 국교 정상화에 상당히 진력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조선 측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 측 사료인 『倭人求講膳錄』에 따르면 '병오년(1606, 원문은 병자년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판단) 범릉적을 압송하고 왕래하며 강화에 진력하였다(丙子年犯陵賊獻俘、且往来通和渠專掌之)'고 하여 '매년 쌀 50석과 콩 3석 5두'를 지급했다고 한다.

12) 『系圖綴<合九冊>』(국편, MF0000735, 4364).

13) 임진왜란 당시 소 요시토시에 종군하였다가 조선에서 사망했으며, 규슈 서북부의 히젠(肥前) 출신이라고 한다. 그 또한 임진왜란의 종군 통사들의 명단에 이름이 확인되나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아리타(有田) 또한 앞서 언급한 이데(井出)와 마찬가지로 쓰시마의 특권 상인 집단 가문 중 하나이므로, 만일 그가 종군 통사로 활동한 것이 맞다면, 전쟁 이전 조선과의 무역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선어를 습득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14) 이데가 이 시기까지 재판역을 유지하다가 아리타로 교대된 것인지, 또한 어떤 이유로 교대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東槎錄』(1624년 회담검쇄환사의 사행록) 1624년 10월 18일 자에 '이데는 매우 노쇠했다(則橘倭耄甚)'라는 기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1624년 시점에서도 이미 상당한 고령이었기 때문에 노쇠화가 이유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15) 『分類紀事大綱』34, 「裁判有田奎兵衛覚書」(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30).

16) 「有田奎兵衛裁判御役之節重立候御用相整候覚書」(나가사키현 쓰시마역사연구센터 소장, 記録類 3-37-B-9).

1727년에 걸쳐 완성한 것이다. 따라서 '초대 모쿠베에 각서'는 아리타가 실제로 재판역으로 활약하던 1630년대 이후의 시기에 성립된 것은 아니며, 엄밀한 의미에서 '1차 사료'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分類紀事大綱』은 쓰시마번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1차 사료)를 항목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그대로 수록하고 있는 사료라는 점에서, 비록 '2차 사료'이긴 하나 그 신뢰도는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해당 사료는 '1차 사료'라고 할 수 있는 아리타의 '업무 일지(日帳, 日記, 覚書 등)'를 그대로 필사하여 수록하고 있다.<sup>17)</sup>

다음으로 '2대 모쿠베에 각서' 또한 '아리타 모쿠베에가 재판역으로 근무했을 때의 중요 교섭을 정리한 각서(有田杵兵衛裁判御役之節重立候御用相整候覚書)'라는 사료명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후년에 그의 공적을 정리한 것이다. 표지에는 '단, 아리타 모쿠베에가 제출함(但、有田杵兵衛より差出)'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리타 모쿠베에는 본 발표에서 다루는 인물이 아니다.

아리타씨의 계보에 따르면, 본 발표에서 다루는 초대 아리타 모쿠베에(有田杵兵衛, 藤智繩, 1587~1651) 이후 아리타 가문의 당주는 초대 고헤에(有田五兵衛, 藤成延, 1610~1659), 2대 고헤에(有田五兵衛, 藤直良, 1651~1691?), 3대 고헤에(有田五兵衛, 藤直幸, ?~?)를 거쳐 2대 모쿠베에(有田杵兵衛, 藤直親, ?~?)로 이어진다. 해당 사료의 말미에는 초대 모쿠베에의 활약을 통해 쓰시마번이 조선과의 통교에서 얻은 이익을 은(銀)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기간은 모두 초대 모쿠베에의 활약으로부터 '교호 12년(1727년)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사료는 1727년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추측해 볼 때 이를 작성하여 당국에 제출한 것은 위의 2대 모쿠베에인 것이 확실하다.<sup>18)</sup>

해당 사료는 소 요시나리(宗義成)가 아리타에게 보낸 당대의 서장을 필사하여 수록한 부분(즉 1차 사료)과 후대의 작성자가 1차 사료를 이용하기도 하면서 초대 모쿠베에의 활약을 정리한 부분(즉 2차 사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초대 모쿠베에 각서'를 편찬하기 위한 재료로서 작성하여 번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도 보일 수 있겠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이는 대부분 초대 모쿠베에의 업무 일지를 그대로 필사하여 수록하고 있는 것이므로, '2대 모쿠베에 각서'가 그 재료가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왜 이 시점에 2대 모쿠베에에 의해 이러한 사료가 작성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sup>19)</sup>

마지막으로 '계보'이다. 사실 아리타씨 계보는 마쓰라씨(松浦氏), 도다씨(戸田氏), 세키노씨(関野氏) 등의 계보와 함께 「系図」라는 서책에 수록되어 있는데, 표지에 '중급 가신의 부(部) 유신 이전에는 오고쇼(大小姓)라고 불렀음(中士之部 維新前 大小姓ト称ス)'라고 부기되어 있다. 즉, 1868년 이후에 아리타 가문에서 계보를 작성하여 쓰시마번 당국에 제출한 뒤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료의 구성은 앞의 '초대 모쿠베에 각서'보다는 '2대 모쿠베에 각서'에 가깝다고 보는데, 아리타씨의 계보 그 자체 외에도 '2대 모쿠베에 각서'에 수록되었던 소 요시나리의 서장을

17) 단, 1차 사료를 그대로 수록한 것 외에도, 편찬자의 관점에서 사료에 대한 보조 설명을 달거나 참고가 될 만한 편찬 당시의 구전을 수록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훗날의 편찬 시점에서 보조적으로 추가된 부분은 1차 사료를 수록하고 있는 부분과 확연히 구별된다.

18) 아리타씨 계보에서 보이는 한 이 2대 모쿠베에를 마지막으로 '모쿠베에'라는 이름이 사용된 경우는 없었다.

19) 다만, 1721년 문위행 일행이 대거 가담하여 쓰시마에서 발각된 밀무역 사건에 아리타 도키고로(有田時五郎)가 연루됨에 따라, 1722년 그 형인 3대 고헤에와 해당 사료를 작성한 2대 모쿠베에가 연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藩法研究会 편, 『近世刑事史料集2 対馬藩』, 創文社, 2014). 1727년 이후라는 시점에 2대 모쿠베에가 선조의 공적을 정리하여 번에 제출했다는 사료의 성격으로 볼 때, 위 사건과 무언가의 관련이 있을 것으로도 추측되기도 하나, 여전히 확실한 바는 알 수 없다.

필사하여 수록한 부분(즉 1차 사료)과 훗날 초대 모쿠베에의 공적을 기록한 부분(즉 2차 사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 수록된 2차 사료는 '2대 모쿠베에 각서'의 그것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2차 사료 부분에는 초대 모쿠베에의 활약을 후대에 서술한 「御一儀之一件」, 「有田五兵衛ち願出候書面之留書」, 「有田五兵衛代=先祖杵兵衛兩國間=様々寸功を立候次第書立差出候書面之跡認」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御一儀之一件」은 국서개작사건에서의 초대 모쿠베에의 활약(소 요시나리에 대한 로주[老中]들의 의심을 풀었다고 함. 후술)을 서술한 것으로, '2대 모쿠베에 각서'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有田五兵衛ち願出候書面之留書」에서는 '모쿠베에 시절에 인정해 주신 구격(旧格) 끊겼기 때문에 이번에 부탁을 드립니다(杵兵衛=被仰付置候旧格之儀中絶仕居候=付此節奉願候)'라고 하면서 아리타 고헤에(有田五兵衛)라는 인물이 초대 모쿠베에의 공적을 열거한 다음, 현재 단절된 모쿠베에 시절의 격(格)을 원래대로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 「有田五兵衛代=先祖杵兵衛兩國間=様々寸功を立候次第書立差出候書面之跡認」에서는 아리타 고헤에라는 인물이 '현재 무진년(当戊辰年)'이라고 언급하면서 초대 모쿠베에의 공적을 정리하여 번 당국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3대 고헤에가 무진년(1748년)에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sup>20)</sup> 이 외에 1691년에 작성한 「有田杵兵衛智繩紀事」와 2대 고헤에(초대 모쿠베에의 손자)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送有田氏藤直良婦对州序」도 초대 모쿠베에의 경력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는 2차 사료로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따로 번 당국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3. 사료에 속 아리타 모쿠베에의 활동

위에서 소개한 '초대 모쿠베에 각서', '2대 모쿠베에 각서', '계보'에 등장하는 아리타 모쿠베에의 활동 기록 유무를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연보	활동	초대 모쿠베에 각서	2대 모쿠베에 각서	계보
1	1634	국서개작사건	○	X	○
2	1635	마상재 초빙	○	○	○
3	1636	통신사/닛코산 참배	○	○	○
4	1637	겸대제 교섭	○	○	○
5	1637	쌀과 목면을 수령	X	○	○
6	1639	연례송사 및 중절선	○	○	○
7	1640	아명도서 교섭	X	○	○
8	1642	조선 국왕 편액 수령	○	○	○
9	1643	통신사/닛코산 헌상	○	○	○
10	1645	참판사 파견	○	○	○
11	1647	조선에 대한 충고	X	○	○
12	1648	구호물자 수령	X	○	○
13	1650	효종 즉위 축하	X	○	○
14	1651	재판역 교대	○	○	X

20) 앞의 주에 언급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사료상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상의 사료에서 보이는 초대 모쿠베에의 주요 활동은 모두 14건이다. 수록된 사료별로 보면, 1차 사료가 중심인 초대 모쿠베에 각서는 9건, 2차 사료가 다수 들어가 있는 2대 모쿠베에 각서와 계보는 각각 13건이다. 이러한 차이는 초대 모쿠베에 각서의 내용이 본인의 실무 일지인 것에 반해, 나머지 둘은 후대에 초대 모쿠베에의 공적을 강조하거나 가문의 전승을 기록한 것이라는 사료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 사료를 통해 복원할 수 있는 초대 모쿠베에의 활동을 간단히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634년 국서개작사건으로 번주 소 요시나리의 상황이 위태로웠을 때는 에도(江戸)로 이동하여 국왕사(國王使)의 상경<sup>21)</sup> 이유에 대한 심리에서 로주(老中)들의 의심을 풀었고(1), 그해 9월에는 에도를 출발해 여전히 국서개작사건으로 요시나리의 안위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1635년 3월 전례에 없는 마상재 일행을 성공적으로 에도로 데려왔다(2). 또한 1636년에는 요시나리의 명령으로 왜관에 건너가 통신사의 도해 시기를 교섭하고 그들을 호행하여 에도로 왔으며, 통신사 삼사(三使)가 전례에 없는 닛코산(日光山) 참배를 거부하며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그들을 설득하여 닛코산 참배를 성사시켰다(3). 1637년에는 왜관으로 건너가서 세건 4선이 5선부터 17선을, 특송 1선이 2선부터 3선을 겸대하는 '겸대제' 교섭을 마무리 지었으며(4), 같은 해 재판역으로서 양국에 공헌하고 있다는 이유로 향후 매년 조선 조정으로부터 매년 쌀 50석과 목면 5속을 지급받게 되었다(5). 1638년부터 다시 왜관으로 건너가 국서개작사건으로 파견이 중지되었던 유천송사(柳川送使)와 이정암송사(以庭庵送使)를 다시 파견<sup>22)</sup>시키는 교섭을 1639년에 성사시키는 한편, 같은 해 수직인(受職人) 5명의 명의로 보내던 수직인선의 후신인 '중절선(中絶船)'에 대한 4년 치 미지급품을 징수했다(6). 이듬해인 1640년 조선에서는 요시나리의 후계자 요시자네(義真)의 아명도서(兒名圖書)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기존 요시나리의 아명도서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결국 교섭을 통해 요시나리와 요시자네의 아명도서로 보내는 아명송사가 한동안 병행 파견되었다(7). 1642년 3월에는 왜관으로 건너가 닛코산 사당에 쓸 조선 국왕의 편액<sup>23)</sup>을 요구하여 받아냈고(8), 같은 해 12월 다시 왜관으로 파견되어 닛코산에 헌상할 조선종과 삼구족(三具足: 향로, 축대, 화병)을 요구한 뒤 1643년 두 번째로 통신사를 호행하여 일본으로 떠났다(9). 뿐만 아니라, 1645년에는 조선에서 광동선(廣東船)을 붙잡아 나가사키로 압송한 결과 크리스트교인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건(1644년)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는 명목으로 쓰시마번이 전례에 없는 사자를 파견했는데, 이때에도 초대 모쿠베에가 교섭하여 이를 참판사라는 정식 사절로서 정착시켰다(10). 1647년에는 예조에 직접 서간을 보내, 예조를 비롯한 경상감사, 동래부사, 부산첨사 등이 빈번히 교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충고했다고 하며(11), 1648년 쓰시마에 흉년이 들자 조선 정부로부터 쌀 1천 석과 목면 200속을 받아냈고(12), 1650년에 효종이 즉위하자 스스로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왜관으로 도해한 뒤(13), 1651년 자신의 후임 가쓰타와 함께 왜관으로 와서 왜학역관들을 한성에서 부르고는 앞으로는 변함없이 재판역과 교섭 사안을 상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14).

이상을 종합하면 이렇다. 즉, 초대 모쿠베에는 국서개작사건을 전후하여 불안한 위치에 있었던 번주 소 요시나리를 보좌하고(1, 2, 3), 쓰시마의 대조선 통교의 틀이 아직 완전히 정해

21) 1629년 겐포(玄方)와 스키무라 우네메(杉村采女)를 비롯한 일행이 국왕사를 자칭하며 한성까지 상경했던 것을 말한다.

22) 단 유천송사는 부특송사(副特送使)로 이름이 바뀐다.

23) 사료에는 조선국왕의 어필인 것으로 나오나, 사실 당시 국왕이던 인조가 아닌, 의창군 이광이 '日光淨界彰孝道場'라는 편액을 지어 보냈다.

지지 않았던 시기에 후대에 정례화될 선례를 창출하는 등 쓰시마번에 경제적 이익을 안겨 주었다(4, 6, 7, 10, 12). 뿐만 아니라 닛코산에 통신사 삼사가 참배하게 하거나 조선 국왕의 편액(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제기를 가져오는 등 막부에 공헌하기도 했다(3, 8, 9). 또한 이러한 활약은 조선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 재판역이 조선 정부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수여받는 선례를 만드는 한편 재판역이라는 직책을 양국 사이의 교섭을 주관하는 직책으로 각인시켰고(5, 14), 그 자신은 조선의 외교 관련 인사에 충고하고 신 국왕 즉위를 위한 사자를 자처하여 도해하는 등 조선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11, 13)는 것이다.

그렇다면 1차 사료와 2차 사료가 교차하는 가운데 모쿠베에의 활약을 어디까지 실제로 인정할 수 있을까? 먼저 국서개작사건에서의 모쿠베에의 활약(1)부터 보도록 하자. 이 사건은 주지의 사실대로 쓰시마번주 소 요시나리의 중신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가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국서 개작을 폭로한 일종의 하극상 사건(御家騒動)이다. 해당 사건과 모쿠베에 사이의 관련에 대해, 초대 모쿠베에 각서의 1차 사료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다만, 『分類紀事大綱』의 편찬자가 마상재 초빙 관련 1차 사료를 수록하면서 '단, 이때(인용자: 1634년) 국서개작사건 관련으로 모쿠베에가 미리 에도에 소환되어 있었다(但、此時は柳川豊前出入ニ付、李兵衛前以江戸へ被召寄相詰罷有候也)'라는 보충 설명을 달은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계보에서는 이때의 활약이 상당히 상세하게 묘사된다. 특히 「御一義之一件」이라는 문서에서 자세하게 그려지는데, 1634년 소 요시나리가 에도에서 참근 중에 국서개작사건 관련으로 초대 모쿠베에를 소환했다는 점은 위의 보충 설명과 일치한다. 다만, 이후의 활약에 대해서는, 그가 국서개작사건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로주(老中) 중 한 명인 마쓰다이라 노부쓰나(松平信綱)의 저택으로 소환되어 이전 국왕사가 조선의 한성까지 간 사정에 대한 심리가 있었고, 그 후 이번에는 로주 사카이 다다카쓰(酒井忠勝)의 저택에서 다른 로주들이 늘어앉은 가운데 이번에도 국왕사에 관한 심리가 있었다고 한다. 이때 초대 모쿠베에가, 현재 일본의 사자가 조선의 한성까지 가는 일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국가 대사에 관련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한성까지 가서 직접 이야기하기도 한다며 국왕사라는 사자가 예외적으로 조선의 한성까지 갔던 이유를 설명했고, 이에 로주들도 '모쿠베에가 하는 말에 확실히 일리가 있기에 의심이 풀렸다(李兵衛申分道理分明ニ相立一言ニ而御不審之所相晴)'다고 한다.<sup>24)</sup> 이 일이 있는 직후 초대 모쿠베에는 요시나리에게 즉시 쓰시마로 돌아가기를 요청했으나, 요시나리가 국서개작사건으로 위태로운 상황이기에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같은 해 9월(同年九月)' 마상재를 초빙하라는 막부의 명령에 따라 쓰시마로 귀국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계보에서 묘사되는 바에 따르면, 심리 과정에서의 초대 모쿠베에의 활약은 1634년의 어느 시점인가에 에도에 소환되어 9월 쓰시마로 귀국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서개작사건에서 로주들의 심리는 1634년 10월 20일에 처음 이루어졌다.<sup>25)</sup> 따라서 아직 심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위와 같은 활약을 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정확한 출처는 밝히지 않았으나 앞서 말한 대로 『分類紀事大綱』의 편찬자가 당시 모쿠베에가 국서개작사건 관련으로 에도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부기한 점을 볼 때, 실제로도 그가 해당 사건 관련으로 에도에 체류 중이었다고 보이며,<sup>26)</sup> 이러한 사실이 후대에 크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24) 마찬가지로 계보에 수록된 「有田五兵衛ニ願出候書留之留書」에서는 초대 모쿠베에의 최대 공적 중 하나로 해당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25)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柳川一件」考, 『歴史の倫理と教育』152, 2019, pp.27-28.

26) 다만, 1683년 쓰시마번이 국서개작사건 관련 자료를 모아 편찬한 「柳川調興公事記録」에서는, 1634년에 요시나리가 초대 모쿠베에를 에도로 소환했다는 기록은 검출되지 않는다.

또한 1636년 통신사 삼사의 닛코산 참배를 모쿠베에가 설득했다는 기록(3)도 신뢰할 수 없다. 1636년 12월 통신사 일행이 에도에 머무르던 중 쇼군 이에미쓰(徳川家光)의 뜻으로 통신사 삼사의 닛코산 참배를 추진했으나 전례에 없는 일이라며 통신사 측은 이를 거절했고, 로주의 한 명인 훗타 마사모리(堀田正盛)가 '쇼군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御請不申上候者、今度之朝鮮人耆人も本国江御返シ不被成)'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막부와 통신사 사이에서 난처해진 요시나리 대신 아리타 모쿠베에가 역관 홍희남과 함께 설득에 나서서 성공했고, 이에 요시나리가 '자리에서 내려와 모쿠베에의 어깨를 어루만지며(茵より御下り被遊、柵兵衛肩を御撫被成)' 기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2대 모쿠베에 각서와 계보는 물론, 초대 모쿠베에 각서에서도 1차 사료가 아닌 '전승'으로 수록된 것이고, 제반 상황을 볼 때 후대의 창작임이 확실하다.<sup>27)</sup> 다만, 1636년 통신사의 사행록 『東槎錄』을 보면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sup>28)</sup> 요시나리와 함께 모쿠베에와 홍희남이 함께 삼사를 설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또한 단순한 사실이 후대에 크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차 사료에만 기록된 사항(5, 7, 11, 12, 13)은 더더욱 신뢰하기 어려울까? 의외지만 여타 사료와 함께 검토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모쿠베에가 조선으로부터 양국 외교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매년 쌀과 목면을 받았는가(5)이다. 제1기 『分類紀事大綱』 17책의 「裁判交代集書」<sup>29)</sup>에는 1651년 9월 7일 자 쓰시마번 문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가쓰타의 접대에 관한 제반 사항이 아리타의 그것에서 변경되지 않았다(五郎左衛門接待諸事、柵兵衛之儀=不相替)'는 문언이 등장하고, 이듬해 9월 8일에는 '가쓰타에게 조선이 선의로 제공하는 목면이 아리타에게 제공한 것과 바뀌지 않았다(勝田五郎左衛門へ朝鮮より心付之公木之儀、有田柵兵衛=被仰付候=不替)'란 기록도 등장한다. 모쿠베에가 1637년이라는 시점부터 쌀 50속과 목면 5속이라는 수량을 받은 것인지는 확정할 수는 없겠으나, 조선으로부터 경제적 수혜를 받고 있었으며, 이것이 그 후임에게도 이어졌다는 것은 사실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sup>30)</sup>

그리고 1640년의 아명도서 교섭에 아리타가 관여했는가(7)에 대해서는 『辺例集要』의 「別差倭」 항목을 보면 1640년 9월에 모쿠베에가 왜관에 왔다는 기사가 확인되고, 『인조실록』의 같은 해 12월 14일에는 왜관의 사자들이 '언만(彦満: 요시자네의 아명)의 세견선 1척을 요구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자세한 교섭 과정은 알 수 없으나, 이때 모쿠베에가 아명도서 교섭에 관여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1647년 모쿠베에가 예조에 직접 서한을 보내면서 조선 측 인사에 개입했는가(11)에 대해서는 다른 사료를 통해 교차 검증되는 바가 없다.<sup>31)</sup> 또한 1650년에 조선 정부로부터 쌀 1천 석과 목면 200속을 받아냈다는 것(12)에 대해서는 『辺例集要』의 「別差倭」 항목을 보면

27) 해당 상황의 진위에 대해서는 이해진, 「1636년 조선통신사의 닛코 참배와 그 기억 - 근세 일본의 '武威' 외교에 관한 재고 -」, 『동양사학연구』163, 2023에 자세하다.

28) 쓰시마번의 기록은 「寛永丙子信使記録」에서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29) 『分類紀事大綱』19, 「裁判交代集書」(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30).

30) 초대 모쿠베에 각서에도 모쿠베에가 공로를 인정받아 매년 쌀 50석과 공목 5속을 지급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라고 한다(由=候)'라고 어디까지나 '전언'으로서 수록하고 있다.

31) 초대 모쿠베에 각서의 「癸未年信使來聘有田柵兵衛日記」 1643년 2월 10일 자를 보면, 모쿠베에가 쓰시마번 당국이 동래부사에게 부산첨사의 교대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는 한편, 현재 부산에 내려와 있는 왜학역관의 수가 부족하니 추가로 인원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고, 동래부사가 '모두 승낙했다(一々御請被成)'고 되어 있다. 모쿠베에가 예조에 서장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래부사 레벨에는 조선 측 인사에 관하여 요청을 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1648년 2월부터 모쿠베에게 왜관으로 와서 '공묵 6,000동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회하는 없었다고 한다. 다만, 2대 모쿠베에 각서에는 '여기에 대한 서간의 사본을 갖고 있다(右書簡之寫所持仕罷在候)'고도 하나, 그 진위는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1650년 그가 효종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도해한 사실은, 『辺例集要』의 「別差倭」 항목에 '저희들이 귀국의 은덕을 많이 입었으니, 이번 새로운 조정이 들어선 날을 맞이하여 진하(陳賀)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라며 도해한 사실이 확인된다.

종합하면, 17세기 초중반 모쿠베에의 활약을 자세히 말해주는 쓰시마 측 사료 3종은 1차 사료와 2차 사료가 혼재한다. 따라서 사료에 대한 비판적이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모쿠베에가 로주들의 심리에 응해서 요시나리에 대한 의심을 해소했다거나, 통신사를 맞이한 상황에서 로주가 통신사 삼사를 귀국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가운데 모쿠베에가 요시나리 대신 극적으로 설득에 성공했다는 서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 '에피소드'는 '완전한 창작'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우며, 그 자세한 내역은 알 수 없지만 모쿠베에가 각각의 사건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보인다. 또한 모쿠베에가 17세기 중후반 조선과 쓰시마 사이의 여러 제도, 특히 세견선 겸대제 교섭, 부특송사 및 이정암송사 파견 재개, 참판사 선례의 확립 등에도 기여했다는 것도 사실로 볼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 양국 사이의 규칙도 온전히 마련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영구한 규정까지 만들었다(亂後間茂無之時節兩國之定式未々全備不仕候處、百年來之永式=罷成候儀共迄申組置)'<sup>32)</sup>라는 후대의 평가가 말해주듯, 17세기 초중반 모든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쿠베에의 활동이 이후의 안정적인 왜관 운영의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에 대신하여

본 발표는 간단한 분석으로 끝났기에, 결론에 대신해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 본 것처럼, 아직 모든 제도가 정립되지 않았던 17세기 초중반, 아리타 모쿠베에라는 인물은 재판역으로서 왜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한 여러 선례를 확립했다. 2대 모쿠베에 각서에서는 그중에서도 부특송사선 재개로 은 7,279관(貫), 이정암송사 재개로 은 1,035관, 중절선 재개로 1,679관 40몬메(匁) 등 총 9,994관 정도를 쓰시마번이 1727년까지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모쿠베에에 의해 만들어진 선례는 왜관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한 것은 물론 쓰시마번에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기도 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사료의 부족으로 아리타 모쿠베에가 재판역으로서 진행한 조일 교섭의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sup>33)</sup> 그럼에도 현재 주어진 1차 사료(초대 모쿠베에 각서의 업무일지, 2대 모쿠베에 각서와 계보의 요시나리 서장)를 최대한 활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

32) 계보의 「有田五兵衛ノ願出候書面之書留」에서 인용.

33) 왜관에서 이루어지는 조일 교섭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왜관에서 작성된 1차 사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관수와 재판역의 업무 일지 『(館守) 毎日記』와 『裁判記録』는 모두 두모포 왜관에서 초랑 왜관으로 이전한 1678년 이후의 것만 남아 있어서, 그 이전의 모습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많다.

을 이야기할 수 있다.

즉, 17세기 초중반 두모포 왜관에서의 조일 교섭은, 우리가 비교적 풍부한 사료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17세기 말 이후 초량 왜관에서의 모습과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초량 왜관에서의 조일 교섭을 떠올려 보면, 쓰시마에서 교섭 사안을 가져온 재판역과 이를 접수하는 동래부사 사이의 의사소통은 원칙적으로 왜학역관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동래부사가 왜관 측과 직접 대면하여 사안을 논의하거나 그 과정에서 문서를 주고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동래부사가 연회에 참석해야 할 때도 왜관 측에서 현안을 직접 제기하려고 하면 동래부사는 병을 핑계로 출석을 피하기도 했다.<sup>34)</sup>

그러나 아리타 모쿠베에가 재판역으로 활약하던 17세기 초중반은 달랐다. 예를 들어 모쿠베에가 마상재를 초빙하기 위해 왜관으로 건너간 1634년 12월 3일, 모쿠베에에 대한 다례(茶禮)에 참석한 동래부사는, 모쿠베에가 가져온 서계에 대해 직접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전례에 없는 마상재 초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모쿠베에는 동래부사에게 사안 타결을 위해 왜학역관 홍희남을 한성으로 올려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또한 통신사 초빙을 위해 모쿠베에가 왜관에 건너가 있던 1642년 12월 30일에는, 모쿠베에, 동래부사, 부산첨사가 종일 다례에 참석하여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終日參會萬々相談仕), 그 후에도 일본과 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는 해가 진 후에야 헤어졌다고 한다(其後日本朝鮮之咄=罷成り、日暮=歸宿仕). 심지어 이듬해 2월 2일에는 모쿠베에가 동래부사에게 서한을 보내고, 5일 동래부사가 군관을 보내서 답변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10일에는 동래부사가 '갑자기' 왜관으로 와서 모쿠베에와 함께 이번 통신사가 가져갈 예물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다. 두모포 왜관 시기의 교섭은 17세기 말 이후 초량 왜관의 교섭과는 달리 동래부사와 재판역이 직접 논의하고 문서를 주고받는 등 보다 밀접한 의사소통의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 싶다. 그럼에도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리타 모쿠베에의 활동이 근세 초중기 조일 관계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

34) 이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2011, pp.150-151.



## 토론문

### 이형주 선생님의 “근세 초 조일관계의 안정적 운영과 쓰시마 재판역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이재훈(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우선 이형주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 토론을 맡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형주 선생님은 왜관의 재판에 관해 학위 논문을 쓰시고 계속해서 왜관을 비롯한 근세 조일관계에 관해 연구의 깊이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조일관계사 관련 연구를 하곤 있지만 제가 왜관에 관련해서는 많이 부족하여 급이 맞지 않아 초보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형주 선생님의 원고 “근세초 조일관계의 안정적 운영과 쓰시마 재판역의 역할-아리타 모쿠베이를 중심으로-”는, 개인적인 평가지만 그야말로 안정적인 조일관계의 토대가 닦여갔던 1630년대 중반, 쓰시마번과 왜관을 오가며 교섭을 훌륭히 처리한 재판역 아리타 모쿠베이에 관한 기록들의 진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우선 아리타 모쿠베이의 행적이 적힌 세 점의 사료 즉 분류기사대강에 실린 것, 후대 아리타모쿠베이가 번청에 제출한 것, 계보의 존재를 밝히시고 세 점의 사료를 통해 모쿠베의 활동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선 이 다섯 가지 사항을 역사적 사실, 그리고 서로의 기술들을 비교하며 진위 여부를 가리시고 있는데, 실은 모쿠베이가 어떤 행적을 쌓았는가를 밝히려 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에서 有田奎兵衛로 검색하면 선생님의 연구결과만 나오는데, 나름대로 교섭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람치고는 그 개인에 대해서는 너무 조명을 받지 못하지 않았는가의 아하하면서도, 이런 개인에 대한 조명이 곧 학술적 가치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결론부에 언급하셨던 왜관의 소통체계의 변화와 원인도 너무 기대가 되는 연구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초보적인 질문을 드리며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료에 적힌 사안의 진위 여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과연 모쿠베이가 진짜 무엇을 하였는가?를 밝히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관련 연구를 찾질 못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료를 비교하면서까지 진위 여부를 밝히고자 하신 것은 여타의 선행연구 가운데에 해당 사료를 전면적으로 인용한 연구가 있어 사료에 신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함이라는 목적도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떤 연구들이 어떤 의미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나가와 잇켄 관련에 대해 언급하실 때 “『分類紀事大綱』의 편찬자가 당시 모쿠베이가

국서개작사건 관련으로 에도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부기를 하였으니 에도에는 있었지만, 말씀대로 심리 날짜가 다르니 심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간 것처럼 들리는데, 기왕 에도에 있었던 데에다가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로쥬의 호출로 특정한 의견을 제출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원 사료를 입수하질 못해서 사료의 정확한 판독 여부와 같은 이야기는 이 자리에선 할 수 없으나, 사료적인 특성이라는 점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주석 26에서 번주가 모쿠베이를 에도로 소환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부기에는 에도에 있었다는 것만 봐도 크게 대단한 일은 하지 않았던 (과장되어 전해지는)것으로 치부해도 좋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닛코산 참배에 대해서도 사행록에도 나와 있는데, 과장된 기록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과연 과장의 기준은 무엇으로 보고 계신지요?

개인적인 경험을 사족으로 달자면, 통신사 기록을 보면 종가문서(신사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 사행록에 나오지 않고, 사행록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종가문서에 나오는 경우를 더러 보면서 어느 쪽이 과장이거나 거짓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번 조선에 대한 충고는 없는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의구심도 좀 듭니다. 2대 아리타의 각서는 계보와 서로 강한 영향을 주고받았음 분명한데 계보는 그렇다고 쳐도 2대 모쿠베이가 번청에 제출한 것이었고, 선조의 공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조선의 인사권에 대해서 왈가불가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조금 의아합니다. 반대로 원자료를 못 봐서 송구하나 분류기사대강에 나와있지 않은 5, 7, 11, 12, 13에서는 단순히 진위 여부만 적어주셨는데, “과장적”으로 보이는 서술은 보이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